

Sulwhasoo

VOL.76 NOVEMBER/DECEMBER 2016

Sulwhasoo



Sulwhasoo

NOVEMBER/DECEMBER 2016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6,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01/10



Bottle and Ground Cherries / 김수강
Gum Bichromate Print, 45×68cm

너무도 간편하게 하루에도 수십, 아니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디지털적 삶 속에서 작가 김수강이 하는 사진 프린트 기법은 의구심과 더불어 깊은 호기심을 갖기 충분하다. 검프린트, 그림물감이 섞인 감광액을 판화지에 바르고 말려 자외선으로 노광을 주고 물로 1~2시간 현상을 하고, 이를 10여 차례 반복함으로써 색에 변화를 주고 톤의 밀도를 높여나가는 작업이다. 지나치리 만치 사소한 오브제들은 작가 김수강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 일상에 묻혀 있는 평범한 사물들, 단순히 보여지는 단면이 아닌 느끼는 내면의 깊이를 사진으로 그리고 검프린트 방식으로 新가치를 구현한다. “찍고 필름을 만들고 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붓질하고 다듬는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맨눈으로 보았던 것보다 대상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검프린트는 특정한 촉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인화의 수단을 넘어서 작업의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행 도구입니다.”

어쩌면 늘 곁에 있어 몰랐던 사소한 사물들의 가치, 너무나 현란한 것들에 가려져 간과했던 관계의 소중함 등을 다시 한번 진심을 더해 바라보길 바라는 작가의 사적인 견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에디터 권지애

In a digital world where most people take and delete hundreds of pictures effortlessly every day, the photographic printing method of Artist SooKang Kim may cause doubts and intense curiosity from the public. He applies the photosensitive solution with gum print and watercolor paints on printmaking sheets, dries them before exposing them to UV rays, and develops it in the water for 1~2 hours. He repeats this process approximately 10 times for color variations and deeper tones. The extremely trivial objects begin to change from the moment they are caught by his eyes. The ordinary objects of everyday life and their inner depth are given new meaning with photography and gum printing. “I repeatedly paint and refine it as I take pictures, make films, and print them out. Through this process, I can see the objects more deeply than through my naked eyes. In this respect, gum print is more than just a developing tool for a certain substantial outcome, it is a critical tool for representing the essence of my work.”

The artist's intent to ask us to rediscover the value of mundane things that are too common to be noticed,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that are overlooked because of more colorful things, gives us a meaningful message,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the year.

Sulwhasoo

VOL.76 NOVEMBER/DECEMBER 2016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품격 있는 삶**
잔칫상에 높이 쌓인 축복과 기쁨
- 12 **피부 섬기기**
거친 겨울, 깊고 맑은 옥의 기운으로
이겨내리니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고려 상감청자에서 비밀에 싸인
한국의 美를 보다
- 22 **新 공간을 보다**
역사를 품은 창작의 거리를 거닐다
- 28 **건너다**
진심을 다한 바른 아름다움,
중국 안에 가득 퍼지다

발행일 2016년 11월 1일(통권 제76호)
발행인·심상배 편집인·류재천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윤희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신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비범한 연기, 보통의 일상
더 멀리 더 높게 퍼져나가는 소리의 균형
- 44 **어우러지다**
전통의 감성이 드리워진 겨울 성탄 장식
- 50 **설화풍경**
눈부신, 새하얀, 시리도록 아름다운 빙결
- 54 **설화보감**
뜨겁고 속 든든한 탕으로 겨울을 녹이다
- 60 **아름다운 기행**
순백의 세상 속으로, 순수의 시감 속으로
강원도 & 핀란드
- 66 **설화수를 말하다**
도시 안에서 조화로운 심신의 균형을 찾다
- 72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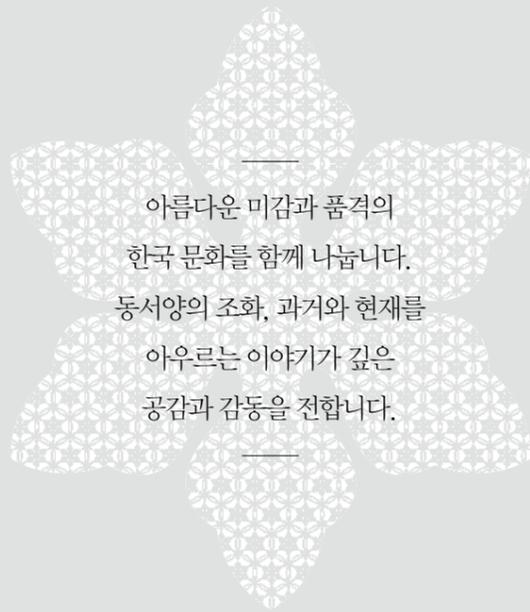


익 히 다

- 76 **읽다**
전통의 아름다움, 현대적인 미감으로 있다
- 82 **배움의 기쁨**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 86 **한국의 멋**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 88 **설화애장**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 90 **집 안 단장**
空間, 문양으로 조화롭게 물들이다
- 92 **몸 단장**
겨울, 누비로 포근하게 몸과 마음을 감싸다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펼
치
다



잔칫상에 높이 쌓인 축복과 기쁨 Abundance of blessings and happiness

잔치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집단적 의식이다. 신령스런 존재를 향해 제물을 바치던 공동체의 제의로부터 사사로운 경사를 축하하는 연회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먹고 노래하며 즐기는 모든 행사들을 통틀어 '잔치'라고 부른다. 공동체의 흔적이 날로 희미해지는 오늘날에도 잔치 문화만큼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광예진, 김수빈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최초로 경험하는 잔치는 백일잔치다. 유아사망률이 높던 시절에 백일을 버텼다는 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주술적 징표였고, 이는 본인에게나 가족들에게나 큰 경사였다. 돌잔치 때는 쌀, 떡, 과일 등이 놓인 돌상 옆에 미래를 점치는 물건들을 놓고 '돌잡이'를 시킨다. 쌀이나 돈은 부를, 실과 국수는 장수長壽를, 붓이나 먹은 관운을 뜻했다. 여자아이 앞에는 활 대신 바늘이나 가위가 놓였다.

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는 아마도 결혼 잔치일 것이다.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결혼 잔치 상엔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와 닭이 많이 쓰였으며 석류, 포도, 대추 등도 비슷한 의미에서 널리 애용되었다. 15세기부터는 잔칫상에 음식을 넉 줄로 차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남들보다 화려하게 상을 차리려는 지배 계급들의 사치 풍조가 사회적 폐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세종실록>에 “전

In Korea, the first party that many newborns experience is the 100th-day party. During the time when the death rate of children was high, the babies who survived the first 100 days were considered blessed with good health. It was one of the reasons to celebrate for the babies and their families. In this party, the table is set with rice, rice cakes, and fruits. In addition, the fortunetelling items are placed on the table for the 'grabbing'. Rice or money meant wealth, yarn or noodles meant longevity, and brush or ink bar meant success. For the girls, needles or scissors were placed instead of bows.

The happiest party in a person's life would probably be the wedding ceremony. Since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pigs and chickens were placed on the tables for the wedding ceremony because they symbolize fertility. Pomegranate, grapes, and dates were also widely used. Since the 15th Century, the food was generally arranged in four rows on the party tables, but it was later ignored due to the ruling class' vanity to put more on their party tables than on other guests' tables. <Sejong Sillok> said, “It would be better to set the party tables in four rows and



왼쪽부터 하늘빛이 도는 백자 잔과 받침은 이민수 작가 작품으로 LVS CRAFT, 백자 삼각 면기는 김희중 작가 작품으로 이도앤즈, 흑유 받침 접시와 흑유 주전자 는 모두 박성욱 작가 작품으로 MUSSO, 백자 굵 있는 잔과 백자 둥근 모양 잔은 모두 노솔 작가 작품, 백자 주병은 우일요, 매트한 느낌의 백유 술병은 이세용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례대로 닉 줄로 잔칫상을 놓아 정해진 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대목이 실려 있을 정도다.

결혼식 날 차리는 잔칫상은 ‘큰상’ 또는 ‘고배상’이라고 불렀다. 마치 탑을 쌓듯 여러 음식들을 높이 쌓아 올린 고배상은 결혼, 환갑, 회혼례 등 특별한 날에만 차려지는 한민족 고유의 문화이며, 화려한 상차림의 대명사로 통했다. 최고最高의 고배상은 순조 29년(1829) 2월, 왕의 생일날에 차려진 것으로, 높이가 무려 2척 2촌(약 65센티미터)에 달했다고 한다.

아시아 각국의 잔치 문화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중국에서는 갓난아기가 생후 30일이 되면 한 달을 무사히 넘겼음을 축하하는 ‘만월滿月’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의 백일잔치와 의미가 유사하다. 일본에는 우리의 환갑잔치에 해당하는 ‘칸레키還曆’ 잔치가 있는데, 서기 8세기 나라 시대 때 상류층에서 시작되어 민간으로 퍼져 나갔다고 한다.

즐거운 잔칫날 음악이 빠질 수 없다. 우리 전통문화에서 잔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 여흥 문화를 가리켜 ‘풍류風流’라 한다. 궁중의 대규모 풍류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풍류도 여러 갈래로 발전되었는데, 19세기에 지어진 <한양가(漢陽歌)>라는 가사에 그 흥겨움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피리는 춤을 받고 해금은 송진 굽고 / 장고는 굴레 죄어 더덕을 크게 치니 / 관현의 좋은 소리 심신이 황홀하다 / (중략) 어부사 상사별곡 황계타령 매화타령 / 잡가 시조 듣기 좋다 / 춤추는 기생들은 머리에 수건 매고 / (중략) 잔영산 일춤 추니 무산선녀 내려온다.” S

follow the traditional customs.”

The party tables for the wedding ceremonies were called ‘Keunsang’ or ‘Gobaesang’. The food was piled up as towers on Gobaesang, and this was Korea’s original culture to celebrate special occasions, such as a wedding, a 60th birthday, or a 60th wedding anniversary. It symbolized colorful table settings. The best Gobaesang was set on King Sunjo’s birthday in February of his 29th year (1829). The piles of food reached approximately 65 centimeters.

The party culture of the Asian countries had similarities with only minor differences. In China, they celebrated the ‘Full Month’ party when a newborn survives the first 30 days. This was similar to Korea’s 100th-day party. Japan celebrates ‘Kaneki’, which is similar to the 60th birthday in Korea. It began with the upper class during the Nara Period in the 8th Century and spread to the commoners.

Music is essential for parties. In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entertainment that was closely related to parties was called ‘Pungryu.’ Pungryu was developed in different ways, including the grand-sized royal performances and the humble Pungryu of the commoners. A song titled <Hanyangga> was written in the 19th Century to clearly depict the fun of Pungryu.

The flute has the dance and Haegeum scratches with a pine resin. / Janggo is tightened to make big sounds. / The good sounds of the winds and strings mesmerize the body and mind. / The songs of Eobusa, Sangsabyeolgok, Hwanggyetaryeong, Machwataryeong. / The songs of Japga and Sijo are pleasing to the ears. / Dancers are wearing towels around the heads. / The Musan fairy comes to join the Janyeongsan Ilchum Dance.’



왼쪽 위에서부터 정사각 백자 굽 있는 접시와 담양 백자 접시는 모두 우일요, 소소 옷칠 젓가락은 강희성 작가 작품으로 해브브서울, 블랙 잣 접시는 이능호 작가 작품, 작은 사이즈의 소소 굽잔은 이기조 작가 작품, 백유 신나팔꽃 잔은 이세용 작가 작품으로 모두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꽃이 그려진 시물 트레이는 우일요, 백자 빗살 매트는 임의섭 작가 작품으로 이도한즈, 물결 느낌의 유기적인 테두리 형태를 가진 순직 사각 접시는 이도포터리 by 이도한즈, 백자 주병은 이민수 작가 작품으로 LV5 CRAFT.

백옥이 가진 정화의 힘으로 맑은 피부를 완성시키다

The white jade's power of purification completes the clarity of skin

피부에 쌓여 있던 해로움을 걷어내어 맑고 깨끗하게 정화한다. 피부 속 깊숙이 백옥의 기운을 전달하는 기술로 피부에 한결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김수빈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여인의 피부, 보고 있노라면 눈부신 투명함으로 보는 이를 설레게 하는 피부를 일컬어 예로부터 백옥같다 했다. 옥玉은 몸의 정화는 물론이요, 부산했던 마음에 평온한 기운을 전달하는 영험함으로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여성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을 만큼 귀한 보석이다. 이렇듯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위한 덕목이자 건강한 삶을 선사하는 보석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오며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기도 한 옥. 수 천년 동안 응축된 땅의 기운이 만들어낸 결정체, 백옥白玉이 지니고 있는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낸 설안팍은 지친 겨울 피부에 윤택함과 생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新덕목이 되어줄 것이다. 화장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기본 바탕이 훌륭하지 않다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옥처럼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갖고자 한다면 설안팍과 더불어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 지친 겨울에 백옥의 눈부신 빛과 결을 선사해주는 설안팍은 아름다운 여성이 갖춰야 할 미를 위한 正道인 것이다.

The flawlessly clean and clear skin of a woman is often compared to the white jade because it mesmerizes people with shining clarity. Jade has been a precious stone identified with women since the old times in the east because it does not only purify the body, but it can miraculously tranquilize your busy mind. Jade also symbolizes a sublime character because it has been considered a gemstone for internal and external beauty and a healthy life. Radiance Energy Mask with the energy of white jade, the crystals created by the energy of land that was concentrated for thousands of years, will be the most essential solution for the refinement and vitality of your tired, winter skin. No matter how skillful you are with makeup, you will not look beautiful with a beautiful background. If you want to have skin that is as clean and clear as jade, you need devoted care along with the Radiance Energy Mask. Radiance Energy Mask for the shiny radiance and texture of white jade on your skin this winter is the right formula for beauty that every beautiful woman should follow.

백옥 첫잔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업익평 옥장 작품으로 가원공방.





설안팩
 소프트한 크림 타입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해주는 피부 정화
 설안팩 80ml

백옥의 첫잔 받침 인주함 모두
 서울시 무형문화재 엄익평 옥장
 작품으로 가원공방.

설안팩
 사용법
 How to use
 Radiance Energy Mask

설안(雪顏) 마사지란?
 순환-정화-활성 3단계로 이루어져
 정화의 힘을 강화시키는 설화수의
 스페셜 뷰티리추얼.
**What is Snowise Whitening
 Massage?** Sulwhasoo's special
 beauty ritual strengthens the
 power of purification in three
 steps: circulation-purification-
 activation.

1 순환 촉진
 내장된 스파츨러의 지압 부위를
 이용해 정수리, 귀 밑, 쇄골, 얼굴
 주요 부위를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어
 피부의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Circulation Use the round end
 part of the included spatula to
 circle around the top of the head,
 under the ears, clavicles, and the
 major parts of the face to smooth
 the circulation of the skin.

2 피부 정화
 스파츨러 마사지 부위를 이용해 이마
 중앙, 눈 앞머리, 콧방울 옆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턱 중앙에서 귀 밑, 쇄골
 안쪽까지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Purification Use the massager
 part of the spatula to gently sweep
 through the center of the forehead,
 inner ends of the eyes, and the
 sides of the nose. Then gently move
 from the center of the chin to under
 the ears and inside the clavicles.

3 활성 강화
 내용물을 적당량 취한 후 얼굴 전체
 퍼바르며 손바닥의 온기로 내용물을
 충분히 밀착 시켜줍니다.
Activation Release an appropriate
 amount and spread over the face.
 Use the warmth of your palm to
 apply the formula onto your skin.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에도 윤기가 돈다. 이처럼 식물에도 윤기가 들게 하는데 어찌 사람을 윤
 택해지게 하지 않겠는가.' <동의보감>에 나온 글귀처럼, 백옥에 응축된 진귀한 에너지를 그대로 전
 하며 밤사이 피부를 정화시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설안팩은 이 겨울 피부를 위한 깊은 보은의 존
 재로 다가온다. 브랜드 과학의 정수로 탄생한 제이드스피어™ 기술이 설안팩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데 이 기술은 백옥 성분의 피부 흡수와 전달을 극대화하고, 피부 속의 노폐물은 정화시키며, 지금까
 지 볼 수 없었던 맑은 피부를 선사한다. 설안팩의 이러한 효능은 깊은 밤, 잠든 사이에 더욱 활발해
 진다. 밤에 사용하는 수면팩으로 탄생한 만큼 낮 동안 피부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쌓인 노폐물
 을 제이드스피어™가 피부 안팎으로 이중 정화하여 다음 날 아침, 한층 맑아진 피부 톤과 윤기를 전
 해준다. 여기에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백단나무 향과 허브 향이 더해진 만큼 밤사이 피부는 절정
 의 안정감을 찾게 된다. 온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에 어깨 마저 잔뜩 움크릴지언정 피부
 만큼은 설안팩이 전하는 백옥의 깊은 효능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맑고 고운 안색과 빛을 발한다. S

'The grass and trees shine when there is jade in the mountains. How wouldn't it refine people
 when it refines the plants?' As stated in <Donguibogam>, Radiance Energy Mask delivers the
 precious energy that is concentrated in white jade to purify and refine the skin overnight. It is the
 richest solution for your skin this winter. The Jadesphere™ technology created with the brand's
 essence of science reveals everything about Radiance Energy Mask. This technology maximizes
 the absorption and delivery of white jade, and purifies the impurities in the skin, presenting the
 clarity of skin that you have never seen before. These efficacies of the Radiance Energy Mask be-
 come more active as you sleep at night. Since it is formulated as a sleeping mask, Jadesphere™ will
 clean out the impurities on your skin that has been expos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during
 the day, leaving the skin radiantly clearer the next morning. With the tranquilizing scents of san-
 dalwood and herbs, your skin will regenerate toward ultimate stability overnight. Your shoulders
 may crouch due to the dropping temperature and the cold wind, but your skin will diffuse a clear
 and fair complexion, a glow with the richness of white jade in Radiance Energy Mask.

고려 상감청자에서 비밀에 싸인 한국의美를 보다

Leman Kalay

레만 칼레이

멀지만 가까운 나라 터키에서 온 그는 인터뷰 뒤에 자신의 학교(경희대학교)가 제2의 집이자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각별한 가족'이라는 편지를 보내 왔다. 또 한국과 한국인이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알아갔다고도 했다. 터키의 도자기와 한국의 도자기를 함께 경험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1 개인적으로 광택보다 무광의 질감을 선호한다는 레만 칼레이 교수의 작품들.

2 칼레이 교수는 제작 당시의 관심사를 작품에 반영한다.



마치 팽이를 연상케 하는 일련의 작품은 우주의 질서를 품은 듯하다.

도자기를 '예술적 매체로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학에서 2년 정도 패션디자인을 공부하다 상업미술보다는 순수미술이 더 잘 맞겠다는 판단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림을 가르쳐주던 선생님께서 도예를 전공해도 좋겠다고 추천해주셨고, 현대 도자와 전통 도자 중 전통 도자를 선택했는데, 결정하고 보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진흙이 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경이에 가까웠으니까요. 특히 결과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예술가 스스로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매혹적이었고요.

자신의 작품을 예로 들어 거기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일관된 메시지는 없죠. 제가 처한 상황, 관심 분야, 심지어 제 기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니까요. 가령, 여기 흑백으로 사람 얼굴이 프린트된 컵 형태의 작품 시리즈의 주제는 '누가 이들을 죽였나'죠. 이 작품을 만들 당시 터키에서는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어요. 그래서 최루탄의 형태에 당시 죽임을 당한 학생들의 얼굴을 투사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가 프린트된 이 두 개의 접시는 당시 터키에서 열린 어느 전시회의 주제인 '낙천주의(Optimism)'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시회 주제는 낙천주의였지만, 현실은 전쟁과 살육이 횡행했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에도 무덤덤해진 아이의 모습을 담아 '염세주의자(Pessimist)'란 제목을 달았지요. 이렇듯 시대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바에 따라 작품의 메시지는 계속 달라져왔어요.

왜 핸드메이드가 아닌 캐스팅을 고집하는지요? 작가적 고민의 결과는 아니고 수전증 때문이죠. 수술을 받았는데도 교정이 안 돼 무거운 걸 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한 작업을 모색해야 했어요. 도구나 장치를 이용해 도예 작업을 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어 캐스팅 방식을 선택했는데, 도구나 장치가 달라짐에 따라

I would like to know why you chose to work with porcelain as your 'artistic medium.' I studied Fashion Design for about two years in college, and then I shifted to painting when I realized that fine art suited me better than commercial art. My art teacher recommended that it would be good for me to major in Ceramics, and I chose traditional porcelain over modern porcelain. It turned out to be a wise choice. Each step of the process, from clay to porcelain, was amazing.

Please elaborate the meaning conveyed by your creations. There is no consistent message. It changes every time based on my situation, interests, and even my mood. For instance, the subject of this series with the black-and-white printing of human faces on the cups is 'who killed these people.' When I made it, there were major protest actions against the anti-democratic suppression of the government in Turkey, and many students' lives were sacrificed. I projected the faces of the students who were killed at that time onto the form of a gas grenade. These two plates with young children express 'Optimism,' which was the subject of an exhibition in Turkey. Though the exhibition was about Optimism, there were wars and manslaughter everywhere, so I captured the children who were indifferent to the fear of war and titled it, 'Pessimist.' The messages of my work have changed constantly based on how I felt under different situations.

Why do you choose casting over hand-building? It does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my artistic contemplation, but with my essential tremor. Even a surgical operation could not fix it, so I could not carry anything heavy. I had to look for another method

결과물이 천차만별인 점도 흥미로웠죠. 또 개인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선호하는데, 캐스팅을 이용하니 수작업보다 완성도 면에서는 훨씬 나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좋았어요.

도자기 표면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글씨 등을 인쇄물을 전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신데요?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핸드페인팅을 가르치고, 핸드페인팅으로 패턴을 완성한 전통 도자를 선호하면서도 정작 작품에 인쇄 기법을 사용한다는 게 흥미롭지요?(웃음) 석사 과정 당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활용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사진 활용 방법을 연구했던 거고, 다양한 프린팅 기법들을 알게 되었어요. 다양한 프린팅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터키와 한국은 각별한 관계입니다. 작가님은 어떤 연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지요? 201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처음으로 참석했던 게 그 계기죠. 당시 경희대 도예과 초빙교수로 와 있던 독일인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수년간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으며 교류했어요. 귀국하게 된 그분의 권유로 후임 교수에 지원한 것이 오늘날까지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장기간의 외국 생활은 처음이라 낯설 줄 알았는데, 마치 가족이나 친구처럼 받아들여준 많은 분들이 있어 아주 행복합니다. 아마도 한국이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각별하게 여긴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터키인들 또한 그런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의 경험자로서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수도인 앙카라를 기준으로 터키의 서부는 서양에, 동부는 동양에 가까운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

besides hand-building. I chose casting, thinking that it would be fun to create ceramics by using tools or a piece of equipment. It was interesting that the outcomes varied significantly with different tools or equipment. Personally, I prefer a shape that is smooth and flawless, and casting yields that are much better finishes than hand-building.

I can see that you transcribe the writings or images onto the surface of porcelain. When I was in the master's program, I enjoyed traveling and took many pictures. One day, it occurred to me that I wanted to use those pictures. I studied the ways in which I could use the images, and learned various printing techniques. I don't fear trying to come out with new experiments, experiencing many failures with various printing methods. Still, it was so fun to learn and discover new techniques. I felt that printing is better and more interesting for me than hand-printing.

Turkey and Korea have a special relationship. How did you form a relationship with Korea? I participated in the Gyeonggi World Ceramic Biennale in 2011. I met a German professor who was teaching Ceramics at Kyunghee University as a visiting professor, and exchanged emails with him for several years. He recommended that I apply for the position as his successor when it was time for him to return to his country, and here I am. I thought it would be hard for me because it would be my first time living abroad, but I was actually very happy because many people have accepted me as part of the family or as a friend. It is probably because Korea thinks of Turkey as a 'brother land' because Turkey fought for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 people of Turkey are also fond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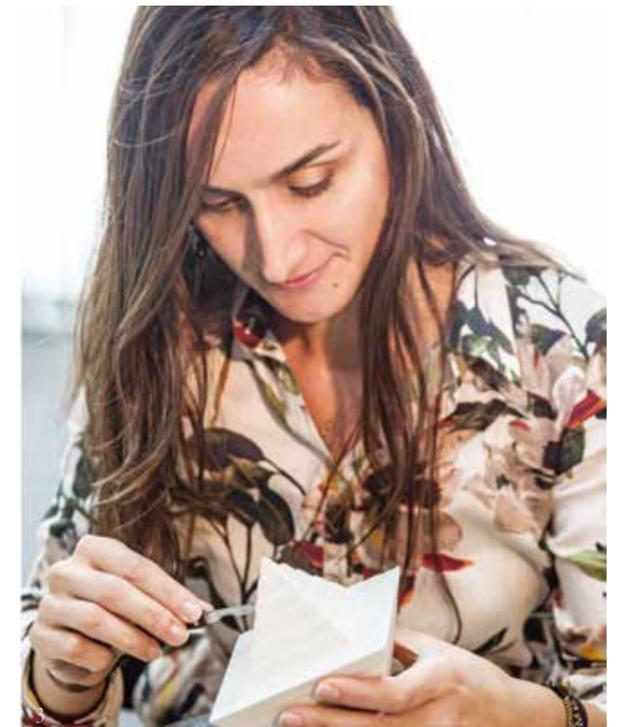
요. 저는 서부 지역(이즈미르, Izmir) 출신이라 서양 문화, 모더니즘에 익숙하지만, 동부 지역 출신인 저의 조모는 아직 동양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정돕니다. 동서양을 아우를 수 있다는 건 터키인의 큰 장점이지요. 그런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볼 때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를 꼽을 수 없군요. 굳이 손꼽자면, 고려 상감청자의 아름다움, 그 신비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옥이나 사찰 같은 옛 건축물도 매우 아름답죠. 그 선과 색, 배경과의 조화등이 말이죠.

한국인에게 도자 문화는 일종의 자긍심입니다. 터키의 전통 도자는 한국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 둘의 특징을 비교한다면요? 한국의 도자 문화나 터키의 도자 문화는 중국이나 주변국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자국만의 독특한 고유문화로 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터키 도기의 경우, 초기에는 블루치아나처럼 짙은 청색을 많이 쓰는 등 패턴이나 색, 형태에 있어 중국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중기로 넘어가면서 모노크롬적인 색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되었어요. 그러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녹색, 적색 등 화려한 색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터키에도 조선 백자와 유사한 형태의 도기가 있는데, 조선 백자가 1200~13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뎌내고 탄생되는 데 반해 터키의 도기는 그보다 훨씬 낮은 저온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구워 집니다. 고려 상감청자는 제가 별도로 논문을 써서 미국의 저널에 기고하기도 했을 만큼 그 아름다움에 반했죠. 연구 때문에 강진의 청자 박물관이나 고려청자 가마터 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고려 상감청자의 경우 도자기의 원조 중국조차 자존심을 꺾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인정했을 만큼 손꼽히는 수작이지요.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귀뜸해주세요. 당분간 논문과 연구에 치중할 생각이에요. 내년에는 개인전을 열 계획도 있고요. 그간 그룹전에는 많이 참여했으니 이번에는 개인전을 열어야죠. 주제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실험을 즐기는 편이에요. 다음 개인전도 실험의 장이 될 거예요. 저의 실험이 어떤 결과로 표출이 될지 기대해주세요. S

Turkey is the borde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How do you see Korean culture based on your experience of both cultures? The west of Ankara, the capital of Turkey, has embraced the Western culture, while the east is close to the Eastern culture. I am from the western region (Izmir), so I am more accustomed to the western culture and modernism. Turkey is lucky to experience both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Coming from this perspective, there are so many beautiful things about the Korean culture that I can't just pick one. Yet if I have to pick one, it is the beauty of the Goryeo celadon with gray inlay. It is indescribable. Traditional structures, such as Korean houses or temples, are very beautiful with the lines, colors, and harmony in the background.

How is Turkey's traditional ceramic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How would you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What the ceramic cultures of Korea and Turk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have developed a unique, original culture although they were historically influenced by Chin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case of Turkish porcelain, there was a strong Chinese influence at first with heavy blue tones, such as Blue China, and also with patterns, colors, and shapes, though it also has monochromatic tones and has developed various shapes through the intermediate period. By the late period, there were many bright colors, such as green and red. Turkey had a form of porcelain similar to the white porcelain of Joseon. The white porcelain of Joseon endured a high temperature of over 1,200~1,300°C prior to completion, but that of Turkey was baked slowly at a much lower temperature. I was so mesmerized by the beauty of the Goryeo celadon with gray inlay, and I wrote a thesis about it for publication on an American journal. I have visited the celadon museum in Gangjin and the old kilns of the Goryeo celadon as part of my research. In the case of the Goryeo celadon with gray inlay, it is one of a kind, has won over the originals from China, and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world's most beautiful porcelain.'



1 연구실 한쪽에 놓인 의자 위에 터키 전통 도자를 다룬 사진집을 펼쳐놓았다. 2 차를 담는 주전자와 탄피를 담은 꽃병 그리고 백자가 된 연밥이 한 폭의 정물화처럼 보인다. 3 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레만 칼레이 교수.



역사를 품은 창작의 거리를 거닐다 Walking down the street of creativity and history

옛이야기를 품은 건물의 가치와 잠재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예술을 덧입힌 공간들이
마을과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근현대 건축물들이 새로움을 입고 전혀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그 자체로도 흥미롭다. 인천아트플랫폼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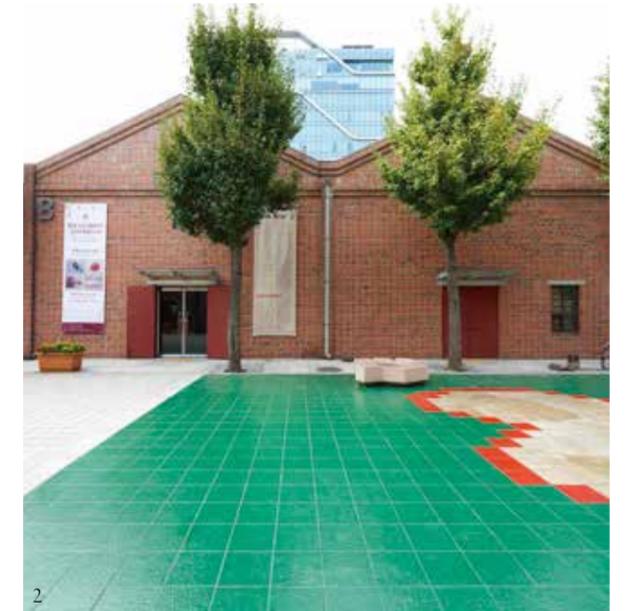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인천아트플랫폼

문화예술과 대중을 연결하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붉은 벽들로 된 옛 건물들이 아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인천 중구 해안동은 인천항과 큰길을 사이에 둔 지역으로, 1883년 개항 이후 국제화와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번성한 곳이다. 특히 항구에 가까운 입지 조건으로 해운 회사, 거대한 규모의 물류 창고 등이 즐비했다. 이곳이 독특한 분위기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은 2009년 9월로, (재)인천문화재단이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안동에 소재한 개항기 근대 건축물과 인근 건물을 매입해 인천아트플랫폼을 조성했다. 1886년에 세운 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 사옥을 비롯해 대한통운 창고 건물, 삼우인쇄소, 피카소 작업실, 영광슈퍼, 대진상사, 양문교회 등 1930~40년대 지어진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붉은 벽돌과 서양 건축 양식으로 마감된 이국적인 옛 건축물은 창작 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각각의 특성을 지닌 총 13개 동의 공간이 되어 문화예술과 대중을 연결하고 있다. 원래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면서, 건물이 가진 역사성과 장소성을 간직하고 다시 태어난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레이어링된 모습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가운데 널따란 거리를 두고 건물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A~C동이 일렬로, 그와 반대편에 D~H동이 위치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인 E동과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 해외 초청 작가들의 단기 체류 주거 공간인 F동을 제외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를 여유롭게 거닐며 둘러보면 된다. 거리 곳곳에는 위트가 담긴 공공 조형물이 자리하고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바닥에 그려져 있어 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간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상징적인 건물인 대한통운 창고는 C동으로, 공연장과 공연 연습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H동

Haeon-dong in Jung-gu, Incheon, where the Incheon Art Platform is located, is across the Port of Incheon and developed with rapid internation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hen the port opened in 1883. Many seaborne shipping companies and large-sized logistics warehouses are situated close to the port. In September 2009, this plac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unique space for culture and arts. Incheon Cultural Foundation purchased a modern building and a number of adjacent buildings in Haeon-dong in order to establish the Incheon Art Platform as a part of the Old Town Regeneration Project. The Incheon Art Platform is a complex of culture and arts that has been created by remodeling a number of modern buildings that were built in the 1930s-40s, such as the warehouse of Daehan Express, Samwoo Printing, Picasso Studio, Yeonggwang Supermarket, Daejin Industries, and Yangmun Church, in addition to the building that was established by Japan Wooseon Co., Ltd.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248) in 1886. It retains the original structures and forms, as well as the historical characters and buildings, to naturally incorporate the present time with the past. Incheon Art Platform has buildings on both sides of the broad avenue. Buildings A through C are aligned at one side, and facing Buildings D through H on the other side. Incheon Art Platform's symbolic building is Building C, which used to be a warehouse for Daehan Express. It is currently used for concerts and rehearsals. On the first floor of Building H is a café where you can skim through past exhibition resources or books with a cup of coffee or tea, as well as light refreshments. Building D, which



1 거리 곳곳에는 위트가 담긴 공공 조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2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B동. 이날은 한국-인도 현대작가 교류회의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3 드라마 <드림하이>, 영화 <뷰티 인사이드> 등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4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 '칠통마당'.



1



2

1 대한통운 창고를 리모델링한 공간은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었다.
2 일본우선주식회사 사옥을 리모델링한 공간은 관리사무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찾아가는 길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해안동1가)

자기용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 인천항-
월미도 방향-하버파크호텔 맞은편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 고속도로 종점-
월미도 방향-하버파크호텔 맞은편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이용: 수송도로-
청라지구-현대제철-월미도 방향-인천
역-하버파크호텔 맞은편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 후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도보 5분

1층에는 지난 전시 자료나 책을 보며 커피와 차, 간단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쌀과 잡화를 실어 나르는 기선(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배)을 운행하던 일본우선주식회사 사옥을 리모델링한 D동은 현재 관리사무동으로 사용 중이다. 은행이나 관공서와 같은 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천 중구의 많은 근대 건축물 중에서 이 건물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회사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이다. 서양식 건물에 일본 특유의 건축 양식이 덧씌워져 있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 지역에 지은 사무소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내외 예술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국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창조적인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입주 작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문화예술 강좌,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매개 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매일 정기적으로 전시, 공연,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열고 있다. 예술가와 대중이 직접 소통하면서 예술가에게는 창작 활동의 에너지를, 대중에게는 예술의 문턱을 낮춰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되 문화예술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생시킨 인천아트플랫폼은 이제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을 꿈꾼다. 쇠퇴하던 구도심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었듯, 머지않은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인천아트플랫폼과 마주하게 될 것 같다. S

used to be the office building for Japan Wooseon Co., Ltd. that operated steamships to transport rice and goods, is currently used as an office building. This building is particularly noticeable among the many modern buildings in Jung-gu, Incheon because it was an office building when most of other buildings were banks or public offices. It is a western-style building covered with unique Japanese inspired designs, which represented the typical style of office buildings built here between the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Incheon Art Platform produces new artistic creations with the residency programs, and supports the artists and researchers in various genres to concentrate on their activities. It also accommodates creative networks for the artists to exchange information beyond international barriers and create international partnerships with global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hosts projects, culture and arts lectures, and children/youth art training programs for the residential artists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 people and the public. It also offers internships and volunteer programs to nurture culture and art mediators. There are various monthly events for anyone who wants to enjoy culture through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civil participatory cultural events. Incheon Art Platform has preserved the past history, yet modernly recreated the space through culture and arts. It is currently being envisioned to become a massive street museum. As it has brought energy and life back to the old town, we would probably see Incheon Art Platform take another step forward in the near future.

진심을 다한 바른 아름다움, 중국 안에 가득 퍼지다 Spreading beauty and love across China

제품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브랜드 철학과 지향하는 가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다.
중국과 한국을 조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어주는 힘, 바로 설화수의 힘이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토포이미지





한국과 중국, 설화수로 이어진 아름다움의 가교

명품의 가치는 세월을 두고 더욱 빛이 나기 마련이다. 과거에서 이어 내려오며 현재를 빛내고 있는 명품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바쁜 준비로 더욱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러한 한국의 명품 화장품 설화수는 수많은 뷰티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굳건히 정상 자리를 지키며 한국의 자랑으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렸다. 그중에서도 설화수가 이뤄낸 중국에서의 성과는 놀랍고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뷰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중국에서 사랑받는 것은 제품 하나하나의 실력을 인정받음과 더불어 한국의 품격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뜻이다. 2011년 3월, 중국에 첫 매장을 론칭한 이래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담은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 사랑받으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 성장의 결과는 중국 미디어의 찬사로 이어졌다. 언론사 인민망이 2014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에서 한방화장품 부문, 2015년 10월 발표한 '요우키 만족도 조사'에서 화장품 부문, 2016년 7월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한방화장품 부문을 수상하며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다수의 중화권 유명 배우들이 설화수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며 설화수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 청두. (삼국지)의 역사를 상징하는 명소이자 현대 문화의 절정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Korea and China, connected by Sulwhasoo

The value of a premium product increases with time. A premium product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prepares for a future with better products. Sulwhasoo, which is a premium cosmetic brand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by the world as the pride of the country by firmly staying on top despite the fierce competition of countless beauty brands. In particular, Sulwhasoo's achievements in China are truly amazing and worthwhile. As the world's beauty industry is currently focusing on China, Korean products that have been recognized in China will become a lucrative venture for Korea. In March 2011, the first Sulwhasoo store was launched in China. Since then, Sulwhasoo has been loved as an authentic luxury beauty brand with a high production rate. Sulwhasoo has been loved in the Korean herbal and medicinal cosmetics division of 'China's Most Beloved Korean Premium Products' by People in September 2014, 'Youke Satisfaction Survey' in October 2015, and 'China's Most Beloved Korean Premium Products' in July 2016. Its popularity has been increasing as a large number of celebrities have visited and purchased products at Sulwhasoo stores. The news went viral among the public.



중국 사천성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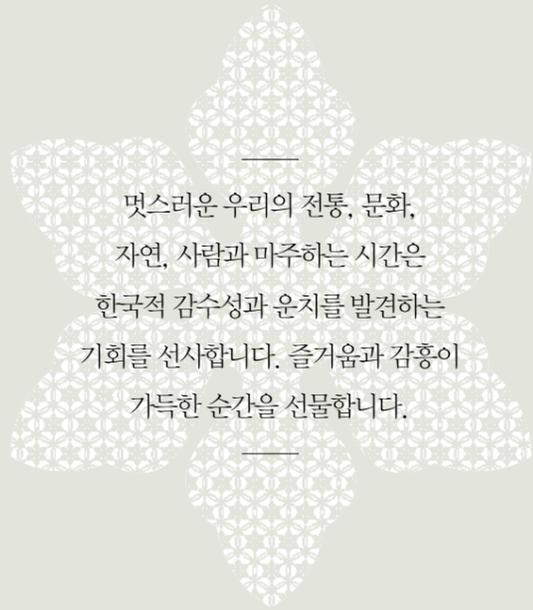
설화수 100호점 매장, 청두에 열다

북경을 대표하는 명품 백화점 신광천지를 비롯해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의 최고급 백화점에 96개의 설화수 매장에 입점해 있다. 각 매장은 해마다 높은 판매율과 더불어 성장률을 기록, 중국 내 설화수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 10월 1일 중국 청두 타이쿠리(太古里)에 설화수 100호점 매장을 열었다. 설화수에게 청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해만큼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두의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관한 관점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두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아시안 뷰티를 중국 안에서 더욱 넓게 발산시키는 거점이기도 하다. 현재 청두 내에 총 7곳의 매장을 운영 중인 데 이번 타이쿠리에 오픈한 여덟 번째 매장은 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타이쿠리는 2014년에 오픈한 최고의 럭셔리 쇼핑몰로 고대 건축 양식을 구현한 몰 디자인이 설화수의 우아함과 어우러지며 한층 더 빛을 발한다. 설화수는 단독 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품격 있는 선물 포장 서비스와 스파 등 VIP 서비스를 통해 청두 여성들에게 진정한 홀리스틱 뷰티를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낭, 에센셜밤 등 타이쿠리 전용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며 조화와 균형을 자랑하는 한국적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청두에서의 중국 100호점 매장 오픈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바른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설화수의 중국 내 성장은 멈출 줄 모르고 현재진행형이다. S

China's 100th store launching in Chengdu

Sulwhasoo has 96 stores conveniently placed in the most prestigious department stores in the major cities of Beijing and Shanghai, including Shin Kong Place in Beijing. Each store is reported to have acquired high revenues and growth rates every year, and Sulwhasoo's position in China is unrivaled. Thanks to the popularity of Sulwhasoo, its 100th store was launched in October 1st at Taikuli, Chengdu. For Sulwhasoo, Chengdu is as important as the renowned city of Shanghai. Many women in Chengdu have changed their view of beauty, and they have shown their love and support for Sulwhasoo. Sulwhasoo is currently operating seven stores in Chengdu, and the new eighth store that opened in Taikuli has a more special meaning. It is an independent store that introduces the concept of authentic holistic beauty to the women of Chengdu with excellent gift-wrapping services and VIP spa services. There are also exclusive products, such as incense pockets and essential balm, to convey the harmony and balance of Korean beauty. The opening of China's 100th store of Sulwhasoo in Chengdu signifies another beginning. It reflects Sulwhasoo's determination to enhance the natural beauty of women. Sulwhasoo's success in China is attributed to its continuous growth and dedication.

청두에서 가장 럭셔리한 쇼핑몰 타이쿠리에 위치한 설화수 매장은 한국적 기품을 지닌 외관과 더불어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설화수 제품들로 꾸며져 있다.



가 마 다



비범한 연기, 보통의 일상
더 멀리 더 높게 퍼져나가는 소리의 균형
Extraordinary acting, Ordinary life
The harmonious sound that spreads farther and higher

Moon So Ri

문 소리

문소리의 연기는 늘 빛났다. 모든 작품이 그 연기의 적재적소였다.
매번 다른 사람이 됐고 다른 삶을 살았다. 덕분에 우리는 감감한 극장에 편하게 앉아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온통 다른 삶을 떠올리며 사는 줄 알았다.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소용돌이치는
하루를 보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비범한 연기는 평범한 일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요즘 그의 화두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했다. 물론 휘청일 때도 있었다. 기울어져도 보고, 흔들려도 봤다. 아이를 낳고 마흔을 넘어서면서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예술적 자아와 개인의 자아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 삶의 여러 가지들이 다 중요할 때, 드디어 조화와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야 말았다.

“배우들은 특히 균형을 잡는 게 힘들어요. 우선 극한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극단적이예요. 과도한 칭찬이나 지나친 질타들이죠.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워요. 한마디로 사태 파악을 못 하게 하죠. 게다가 욕망이 강한 집단이예요. 자신에 대한 사랑, 욕망이 엄청 강하죠. 한때는 균형을 잡고 사는 게 배우한테 가능한 일일까?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많이 흔들렸죠.”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가치들도 마치 톱니바퀴처럼 각자 맞물리며 돌아가고 있다. 조금씩 꺾이고 더해지고 마모되고 돌아나면서 배우 문소리와 인간 문소리가 하나로 조화롭게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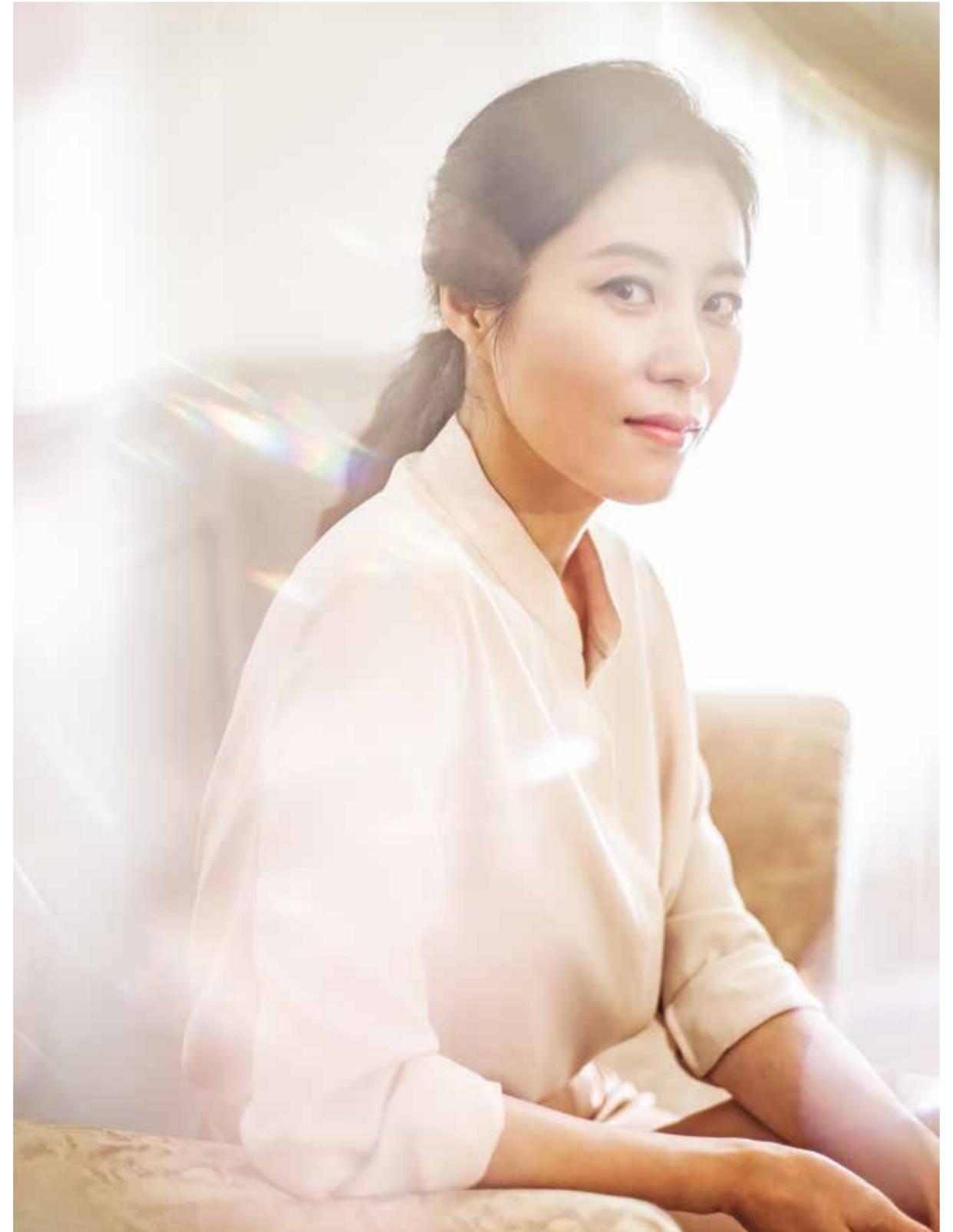
“여배우라는 직업, 남들이 보기에 특별할 수 있죠. 실제로 조금 독특하긴 해요. 그래서 제 삶에서는 특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보통의 수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균형을 맞춰서 평범하게, 일상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제가 스물여섯에 데뷔했는데, 지금 생각 하면 보통의 삶이 당시 문소리의 연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배우가 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데뷔 전까지 평범한 여고생으로, 대학생으로 열심히 지냈던 것이 제 연기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These days, she often uses the words harmony and balance. She admits that sometimes she loses balance. She has experienced shortcomings and distractions. She began to ponder about a balanced life, as she had a child and over 40 years old. How is she handling her artistic ego and personal ego? She is at the stage of her life where there are many things with importance, but she cannot help but think about harmony and balance.

“Staying in balance is particularly hard for actors and actresses. You have to go through extreme emotions. Most of the stories that the world tells us are in the extreme, from compliments to criticisms. It is hard to hear anything based on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world. It is also difficult for us to see through things. Furthermore, we are a group of people full of passion and love for ourselves. I once questioned whether it would actually be possible for actors and actresses to stay in balance. That’s why I was often flustered when I was younger.”

The values that she once thought were completely different are now working out together in unity. Sori Moon has harmonized both the performer and ordinary person in her, as they have been carved, added, worn, and re-grown.

“Being an actress is quite unique. Personally, I don’t want to be treated in a special way. I want to be ordinary and blend in with other people as much as possible. I try to be like that every day. I debuted at the age of 26, so I have experienced an ordinary life prior to that. I wasn’t prepared to become an actress when I was young, as I was just an ordinary high school girl and college





지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노력해서 특별한 걸 얻는다면 칭찬해주지만,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키울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녀는 '보통의 일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먹는 것도 여배우로서의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친정 엄마와 함께 사는데, 아침이면 엄마가 두세 종류의 제철 과일을 잘 깎아놔요. 가족들이 하루 준비를 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먹죠. 따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진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제때 수확된 자연에서 난 신선한 것들로 충분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해요. 남들이 다 한다는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고, 탄츠 플레이라는 현대 무용을 기반으로 한 운동도 하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면 108배라도 하려고 하죠. 매일 지킬 것을 지키고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 것들이죠.”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삶. 다만 그녀가 노력하는 것은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모든 문화예술에 감각을 열어놓는 것. 자기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우로서 살아나가기 위한 공부이기도 하다. 문소리는 학교에 다니고 학위를 따는 게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면서 지속되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이기 때문이다. “일차원적으로는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좋아지죠. 그리고 연기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잘 살아야 연기가 좋아져요. 카메라 앞에 있지 않은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연기를 지배하거든요. 다 보여요. 그러니 계속 공부해야죠. 모든 예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누구라도 자기를 매일 잘 갈고닦아야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무엇을 매일매일 가꾸는 자세, 바로 그것이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연기를 뽑아내는 비결인 것 같았다.

student before I debuted. It contributed to my personality and became part of my performance technique. I don't want to give that up.” She elaborated what an ‘ordinary life’ would be.

“It’s also about your diet and routine as an actress. I live with my mom and she peels two or three kinds of seasonal fruit every morning. My family eats them as they walk around to get ready for the day. I don’t take vitamins or any other health supplements. I try to eat healthy instead. I feel that eating fresh-grown natural food is enough. I also ask my mom to pack me some lunch whenever she can. I work outside all day and I feel that it isn’t fair that I can’t eat her delicious food. I believe that you can’t eat too much of processed food, no matter how special it is. In addition, I exercise every day. I work out with a personal trainer, and my exercise program consists of a modern dance technique called Tanz Play. If I am too busy to do anything, I try to bow 108 times(A Buddhist ritual). I just do my best to do what I should do every day just like everyone else.”

A life just like ours. She tries to open up her senses to different culture and arts, including literature, music, and fine art. She tries to look deep inside herself and discover something new. This is how she learns to live as an actress. She believes that learning is not limited to school and earning a degree. Learn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the many things that she should continue throughout her life.

“뭘랄까 품위를 지키고 살고 싶은 나이가 됐어요. 결만 번지르르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죠.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잘 늘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설화수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진하고 깊은, 품위 있는 이미지. 저도 그렇게 늘어갔으면 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소리가 감명 깊게 봤다는 영화를 구해 보는 것이었다. 얼마 전 세계 3대 영화제라는 베니스 영화제 오리존티 부문 심사를 마치고 온 그의 추천이지 않은가! 같은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십수 년이 지나 다시 한국인 최초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무후무 자랑스러운 우리 여배우의 감수성을 흔든 영화. 그걸 보면 그와 나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음악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음악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조화를 이루게 돼요. 음악과 삶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끝없이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거죠.”

배우 에단 호크가 연출한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에서 거장 세이모어가 한 이 말에 그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세이모어는 연주를 마치고 말한다. “나는 하늘을 만졌어요”라고. 문소리도 연기를 통해 그 순간을 만나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만지는 순간 우리도 다 함께 푸른 창공을 날 수 있을 것이다. S

“I’m at the stage of my life where I want to appear dignified. I’m not talking about looking nice on the outside, but instead, becoming a truly dignified person. There are more things I have to consider now, but this is part of growing old. This is the reason why keeping my life in balance is more important to me. That’s what Sulwhasoo is all about. It’s rich, deep, and dignified. That’s how I want to age.”

After interviewing Moon, I watched the movie that she recommended. She was one of the judges of the Orizzonti Competition at the Venice Film Festival, which is one of the world’s most celebrated film festivals. The movie impressed this actress, who became Korea’s first winner in a new actress award at that film festival and was proudly invited to become the first Korean judge in the competition a few years later. I was able to understand what she said after watching the movie.

“Your musical identity and personal identity will harmonize from deep within yourself if you learn to love music and clearly understand why you need to practice. Music and life work hand in hand to assist you in pursuing your goal.”

What Seymour said in <Seymour>, which was directed by the renowned actor Ethan Hawke, reflected his way of life. At the last part of the movie, Seymour said, “I touched the sky.” I hope that Moon will experience that moment through acting. All of us would be able to soar in the blue sky at the moment she touches the sky.

메이크업 현아(순수 02-515-5575) 헤어 예신(순수) 스타일리스트 구원서



1 오렌지 컬러 스완 체어는 프리츠한센 by 보에 2 색동과 전통 매듭으로 만들어진 간세 인형, 괴불 노리개, 비늘 쿠션 모두 JJ아트 3 마블 캔들 홀더는 하우스라벨 4 원형 리노 사이드 테이블은 오블리크 테이블 5 색동 레드 쿠션은 오은영 작가 작품으로 폼지락 규방 6 곡선 형태의 블루 패브릭 46스파는 원컬렉션 by 보에 7 핑크 블랭킷은 자라홍 8 레드 도자기 컵은 이택수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9 호두 나무 옷걸이 트레이는 문채훈 by damoon collection.com 10 자석 미니 색동 주머니는 오은영 작가 작품으로 폼지락규방 11 사과 모양 도자기 합은 이정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12 버건디 컬러 리노 사이드 테이블은 오블리크테이블 13 여러가지 컬러조합이 가능한 컬러에코 보드로 제작된 아동용 옷걸이 '트리웨이'는 박하수 작가 작품 14 천연 염색된 주머니는 한정혜 작가 작품으로 니들스튜디오 15 벽에 걸린 골드 브라스 캔들 스틱은 모두 HAY by 에잇컬러스 16 무지개 보자기는 오은영 작가 작품으로 폼지락 규방 17 세라믹 소재 불링 베이스는 디자인마요 18 그레이 핑크 컬러의 캔들 홀더는 모두 디자인마요 19 물공판 방식은 강금성 작가 작품으로 빈 컬렉션 20 기하학 패턴의 HEXA 카펫은 GAN by 유앤어스

전통의 감성이 드리워진 겨울 성탄 장식

특별한 날 고운 옷으로 차장을 하듯, 성탄절이 되면 어여쁘게 장식한 나무 한 그루가 집 안에 행복한 기운을 전해준다. 전통 오브제들과 어우러져 만들어진 겨울 성탄 장식, 불수룩 넘치는 센스에 감탄하게 된다.

에디터 원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김수빈



* 월넛 컬러의 헤링본 디자인 마루 '프라하'는 구정마루

왼쪽 페이지 1 핸드메이드 패브릭 오브제는
 파이브콤마 2 네이비 컬러 세라믹 화병은
 모두 하우스라벨 3 선물 포장된 감사와 오색
 보자기는 모두 호호당 4, 7 느티나무 원형
 마죽반과 화형 마원반은 양병용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5 블루와 퍼플 컬러의 라운드 소반 모두
 이지훈 작가 작품으로 이도앤즈 6 옷칠 삼각뿔
 형태에 황동 상판을 올린 소반은 DaMoon by
 damooncollection.com 8 기하학적 모양의
 모노 톤 MOSAIC 카펫은 GAN by 유앤
 어스 판매 9 짙은 브라운 가죽 버터플라이
 체어는 CUEPO DESIGN By 이노메사
오른쪽 페이지 1 모사와 리넨 실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표현한 자수 작품은 모두 영경숙
 작가 작품으로 소금빛자수(blog.naver.com/
 wishes37) 2 데님 천으로 만들어진 잔나무
 오브제는 모두 윤현앤즈 3 로즈우드 상판과
 브라스 다리로 된 긴 형태의 벤치는 서정화
 작가 작품

* 마스터드 컬러의 페인트
 벽은 DET484, 톤다운된
 핑크색 페인트 파티션은
 DET402, 버건디 컬러 페인트
 파티션은 DET401, 카키색
 페인트 배색벽은 DE174
 모두 던에드워드(논현점)



일상의 소소한 품들이 모여 만든 특별한 트리

한땀 한땀 정성 가득한 바느질 자수가 트리를 위한 오너먼트로 변신했다.
 트리 모양으로 벽에 걸린 자수 작품들은 마치 큰 눈송이들을 연상시키며 새하얀 겨울을 선물처럼 선사한다.
 컬러풀한 색감을 입은 소반의 소박한 듯 꽤나 유틸 있는 변신이 눈길을 끈다. 크기가 다른 소반을 쌓아
 맨 위에 소망하는 오너먼트를 놓는 것 또한 장식을 위한 센스.



일상 속 색다른 변화, 感다른 실내 풍경

카드 한 장이 소원과 소망을 담은 소중한 오너먼트가 되었다.
 전통 문양과 더불어 작가의 터치가 가미된 카드들은 공간에 색다른 변화를 준다. 전통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가의 장신구,
 작은 트리에서 활짝 피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식으로 감각적인 탄생을 도모했다.

* 진한 녹색의 페인트 컬러벽은
 DEA177, 창문 안쪽에 칠해진
 보라색 페인트 컬러는 DEA143
 던에드워드(눈현정).

왼쪽 페이지 1 패턴 세라믹 티포트는 한주은
 작가 작품으로 이도한즈 2 편화 기법으로 하나하나
 찍어낸 액자 작품은 폴카렐리 By 하우스라벨
 3 캔들 스탠드는 하우스닥터 By 에이컬러스
 4 옷칠 연필꽂이는 문채훈 작가 by chaehoonmoon.
 com 5, 10 현대적 감성으로 재탄생한 아트북 <빛깔
 담기>와 트리에 장식된 아트북은 지희승 작가 작품
 6 배금 모란문 시각 등잔은 나용환 작가 작품으
 로 KODF갤러리 7 분청 탑은 박성욱 작가 작품으로
 MUSSO 8 나전과 옷칠 기법 모란 무늬 그림 접시는
 나은 크라프트 9 한국 전통문양 연말카드는 모두
 해브빈서울 11 비대칭 패러독스 시계는 박하수
 작가 작품 12 낮은 블랙 우드 서랍장은 멩뜨 디자인
 13 한지 패턴 북을 이용하여 만든 DIY 한지 카드는
 김주성 작가 작품으로 YTT 오른쪽 페이지 1, 5, 11
 단동 소재에 칠보법랑 처리된 베이스와 컵, 촛대
 모두 김윤진 작가와 권종모 작가 작품으로 HAAM
 2 트리에 장식된 금속 액세서리는 모두 이수인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3 트리가 담긴 금속 원형
 베이스는 플라워베리 by 윤현앤즈 4 작은 유리 접시는
 DaMoon by damooncollection.com 6, 10 넓은 방짜
 주석 그릇은 아름지기 7 코퍼 마개로 된 유리 물병과
 유리잔은 TOMDIXON by 10corsocomo 8 플레인
 유리 볼은 DaMoon by damooncollection.com
 9 나무가 일루미늄을 '담석물었다'의 느낌을 표현한
 골드 담석 테이블은 양웅걸 작가 작품 12 얇은
 각재 프레임에 이용해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사방탁자는 박하수 작가 작품



눈부신, 새하얀, 시리도록 아름다운 빙결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을 잃을 정도다. 공기 냉각이 만드는 환상적인 빙결, 상고대. 시인들은 상고대를 두고 매서운 찬바람을 맨몸으로 맞던 앙상한 나뭇가지가 하얀 솜옷을 걸쳤다 한다. 자연이 만들어낸 겨울 걸작에 마음이 두근거린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토픽 이미지



소양강 상고대의 시린 아름다움이 어라

영하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방울이 물체와 만나 생기는 상고대는 겨울미의 절정이다. 습기가 많고 기온이 푹 떨어지는 아침, 소양강 댐 주변에서 만나는 상고대는 물안개와 더불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을 만들어낸다. 그저 아, 하는 탄성만이 나올 뿐이다.



기온, 바람 그리고 안개가 만든 겨울 작품

운무에 휩싸여 신비스러움을 간직했던 산 정상에 거센 바람이 분다.
불현듯 바람이 멈춘 자리에는 상고대의 숨막히는 장관이 펼쳐진다. 강원도 횡계 나무에 하얗게 내린 서리 상고대는
아름답기 그지없고 순간을 감동으로 물들이는 자연의 놀라움에 미물은 잠시 말을 잃고 만다.



따뜻하게 마음을 어루만지고 부드럽게 몸을 감싸네

청량하고 맑은 기온과 더불어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내면의 편안함을 다스려 삶의 균형과 평온함을
선사해주는 홀리스틱 향초인 윤조지향.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고, 골과 치마버섯
추출물 성분이 피부 깊이 영양을 채우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보디 크림인 연섶바디크림.



뜨겁고 속 든든한 탕으로 겨울을 녹이다 A hearty soup for a warm winter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은 물론이요 푸짐한 야채 또한 일품이다.
추운 겨울을 거뜰히 날 수 있게 하는 보양식으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의 넉넉한 맛, 바로 탕이다.
푸짐한 재료 넣고 푹 끓이는, 원리는 간단하지만 오랜 시간 공들여야 시간의 맛이 제대로 우러나온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속을 풀어주고 든든히 채워주는 효종갱 (曉鍾羹)

새벽을 깨우는 국인 효종갱. 새벽종이 울릴 때 즐겨 먹던 해장국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배추 속대, 콩나물, 송이와 표고버섯, 갈비 그리고 바다의 인삼인 해삼, 전복을 넣고 토장 즉 된장과 함께 푹 고는 음식으로 한 숟갈 입 안에 넣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된장과 어우러지며 내는 깊은 맛의 향연들은 허한 속을 든든히 채워주며 몸을 더욱 튼실하게 보한다.

Hyojonggaeng, a hearty soup to soothe your stomach
Hyojonggaeng is a soup that is best enjoyed in the morning. It was also the first food to be delivered among homes in Korea. The soybean soup is made up of boiled soybean sprouts with Asian cabbage inner leaves, button mushrooms, shiitake mushrooms, beef ribs, sea cucumber, and abalone. A spoonful of this soup will delight you.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ingredients with the soybean soup base will fill up your stomach and strengthen your body.





낮은 열량과 높은 영양 건강식,
연포탕

지방 성분이 거의 없고 타우린과 무기질,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 있는 낙지는 조혈 강장뿐 아니라 칼슘의 흡수와 분해를 돕기에 예로부터 보양식 재료로 많이 쓰여왔다. 보들보들한 낙지와 깔끔한 국물의 조화로 연포탕만큼 낙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은 아마도 없으리라. 부추 또는 배추와 함께 끓이고 소금으로 간만 맞추면 되는 간편하고도 훌륭한 겨울 일이다.

Yeonpotang, a highly nutritious dish with low calories

The webfoot octopus is virtually free of fat, as well as filled with taurine, minerals, and amino acids. It has been widely used to create healthy dishes, as it not only increases the production of blood in the body, but also helps with calcium absorption. No other dish brings out the real taste of webfoot octopus better than Yeonpotang. It is a simple, yet great winter dish, and all you have to do is boil the webfoot octopus with leek or Asian cabbages, and add salt to taste.



담백하고도 든든한 백미,
두부탕

탱탱한 듯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 또한 탕의 좋은 재료다.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에 깍둑썰기한 두부와 큼직하고 보기 좋게 썬 송이버섯, 파 등을 넣고 끓이면 완성이다. 간 생강에 간장을 조금 섞어 만든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기운과 알싸한 맛이 두부와 색다른 조화를 이룬다. 아침에 먹으면 부담이 없어 더욱 좋을 단백 보양식이다.

Dubutang, a light and healthy soup

The firm and soft tofu is another notable ingredient for this soup. Just add cubed tofu, coarsely cut button mushrooms, and green onions in the kelp soup base. Dip the tofu in the special soy sauce made with ground ginger. The spicy taste of ginger, which warms your body, perfectly blends with the tofu. It is a great protein-enriched healthy food that is light enough to eat for breakfast.

맑고 시원한 국물 미감,
대구탕

버릴 것 하나 없는 생선인 대구는 대표적인 흰 살 생선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왔다. 지방 함량이 1퍼센트도 안 되는 반면 단백질 함량은 17.5퍼센트에 달해서 맛이 담백하면서도 고소하다. 덕분에 생선 비린내를 꺼리는 사람들도 대구를 즐긴다. 또한 입과 머리가 큰 생선인 만큼 대구 한 마리만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무, 미나리, 느타리버섯 등을 더하면 국물이 한결 맑아지고 맛은 시원해진다.

Daegutang, a clear and invigorating soup

Cod is a fish that you can eat from head to tail.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fish in the world due to its white and succulent meat. For a long period of time, cod has been a favorite ingredient of the East and West. It contains 17.5% protein with less than 1% fat. People who cannot stand the smell of fish will enjoy cod because it has less odor. It is typical for a cod to have a big mouth and head; therefore, one cod is usually enough to feed an entire family. The broth is more invigorating when prepared with radish, Javan waterdropwort, and oyster mushrooms.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보양식, 대구탕
Daegutang, a healthy dish for the entire family

재료 대구 4토막(320g), 무 100g, 배추 200g, 콩나물 100g, 미나리 50g, 대파 1대, 표고버섯 2개, 양념장(청주·액젓 1큰술씩, 고운 소금 2/3작은술)

만드는 법

1 토막 낸 대구와 뼈, 머리에 굵은 소금을 뿌려 30분 정도 둔다. 2 ①을 소쿠리에 담고 끓는 물을 끼얹어 비린내를 제거한다. 3 볶은 멸치로 낸 멸치 국물을 냄비에 붓고 대구 뼈와 무를 넣고 끓인다. 1시간 정도 끓인 후 면보에 국물을 걸러 6컵 정도 준비한다. 4 무는 가로, 세로 3cm 길이로 얇게 썰고 배추는 3cm 길이로, 미나리는 4cm 길이로 썰어놓는다. 콩나물과 버섯 역시 손질해놓는다. 5 국물 6컵을 냄비에 붓고 무와 배추, 콩나물, 대파, 표고버섯을 넣고 뚜껑을 닫아 한소끔 끓이다가 대구를 넣는다. 6 미나리를 넣어 간을 맞춘 뒤 맨 나중에 레몬을 짜서 조금 넣어 국물을 더욱 개운하게 만든다.

Ingredients Four pieces of cod (320g), 100g of radish, 200g of Asian cabbage, 100g of soybean sprouts, 50g of Javan waterdropwort, 1 root of spring onion, 2 shiitake mushrooms, Sauce (1tbsp. of clear rice wine and fish sauce, 2/3tbsp. of fine salt)

Recipe

1 Season the cod pieces, bones, and head with coarse salt. Let it sit for 30 minutes. 2 Put ① in a basket and pour boiling water to remove the fishy odor. 3 Pour anchovy broth made with roasted anchovies into a pot, and boil the cod bones and radish. Boil for about an hour, then strain the broth through a cloth as much as 6 cups. 4 Slice the radish into 3-cm squares. Cut the Asian cabbage into 3-cm squares and cut the Javan waterdropwort into 3-cm squares. Wash and prepare the soybean sprouts and mushrooms. 5 Pour the six cups of broth into a pot. Add the radish, Asian cabbage, soybean sprouts, spring onion, and shiitake mushrooms. Cover and bring to a boil. When it starts to boil, place the cod in the pot. 6. Add Javan waterdropwort and salt to taste. To make the soup more invigorating, add a little bit of lemon juice.





순백의 세상 속으로, 순수의 시각 속으로

Gangwondo & Finland

강원도 & 핀란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나면 하늘엔 눈을 위한 문이 열린다. 땅 위로 쏟아져 내린 하얀 눈들은 세상을 온통 백색미감으로 채워버린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토크 이미지, 셔터 스톡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의 겨울.
바로 이것이 강원도의 힘이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년 열두 달 하
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地圖)> 중 한 소절이 마음에 와 닿는 계절이
다. 겨울은 미간 찌푸릴 만치 매서운 바람과 푹 떨어지는 기온으로 잔뜩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눈이 내리기라도 하면 온통 포근한 감성이 끝도 없이 뒤덮인다. 만물의 지저분한 때를 순식간에 덮
어버리는 그 순백의 세상처럼 심신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눈’이라는 겨울 명사
가 유난히도 잘 어울리는 곳, 바로 강원도다.

깊고 당찬 산세와 더불어 강인한 바다를 끼고 있는 강원도는 겨울이 되면 새하얀 옷을 입고 많은
이들을 반긴다. 더욱이 설국으로 변하고 나면 상상치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강원도 이
곳저곳에서 장엄하게 펼쳐진다. 강원도의 겨울과 같은 계절에 다른 모습을 갖춘, 동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핀란드는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극야 현상으로 무척이나 어둡고 고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친절함에 따뜻함을 느끼며 어둠 속 새하얀 설경에 매료되면, 그 어디에서도 못 만
날 진귀한 풍경과 북극광, 산타, 썰매 등 판타지 스토리 가득한 핀란드를 만나게 된다.



너무나 이국적인 겨울 풍경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포근한 감성이
곳곳에 드리워진 핀란드는 고요하고 아름답다.

‘When the snow melts, flowers will bloom on every remaining footprint, and it will snow all
year in my heart when I go out to look for the footsteps through the flowers.’ This is the time
of the year when this verse from Dong Joo Yoon’s <Snowing Map> touches the heart. Winter
makes you huddle because of the strong winds. It also brings a frown to your face due to the
low temperature. However, the snow covers the world with endless sentiments everywhere.
You hope that your body and mind can be healed similar to the pure-white world that covers
all filthy things in an instant. The word ‘snow’ goes particularly well with Gangwon-do. When
it is covered in snow, countless beautiful sceneries are presented throughout Gangwon-do. The
winter in Finland is different from that of Gangwon-do. Finland brings an imaginary land
from a fairy tale into reality. Winter is very dark and solemn because of the polar night. Once
you are mesmerized by the beauty of snow in the dark and the warm hospitality of the people,
you will discover the real attraction of Finland filled with its unique sceneries, including the
world renowned Northern Lights, Santa, sleigh, and many fantasy stories.



봄, 여름, 가을에 이어 겨울이 되면 숨겨두었던 또 다른 극치의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진다.

하얀 물감에 담갔다 건진 듯 얇은 나뭇가지 끝까지 하얀 눈 옷을 차려 입는다. 하늘이라도 푸르르면 상고대는 마치 바닷속 산호초를 보는 느낌마저 든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눈꽃이 훑날리는 모습은 추위를 잊게 만들며,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셔터를 끌도 없이 누르게 만드는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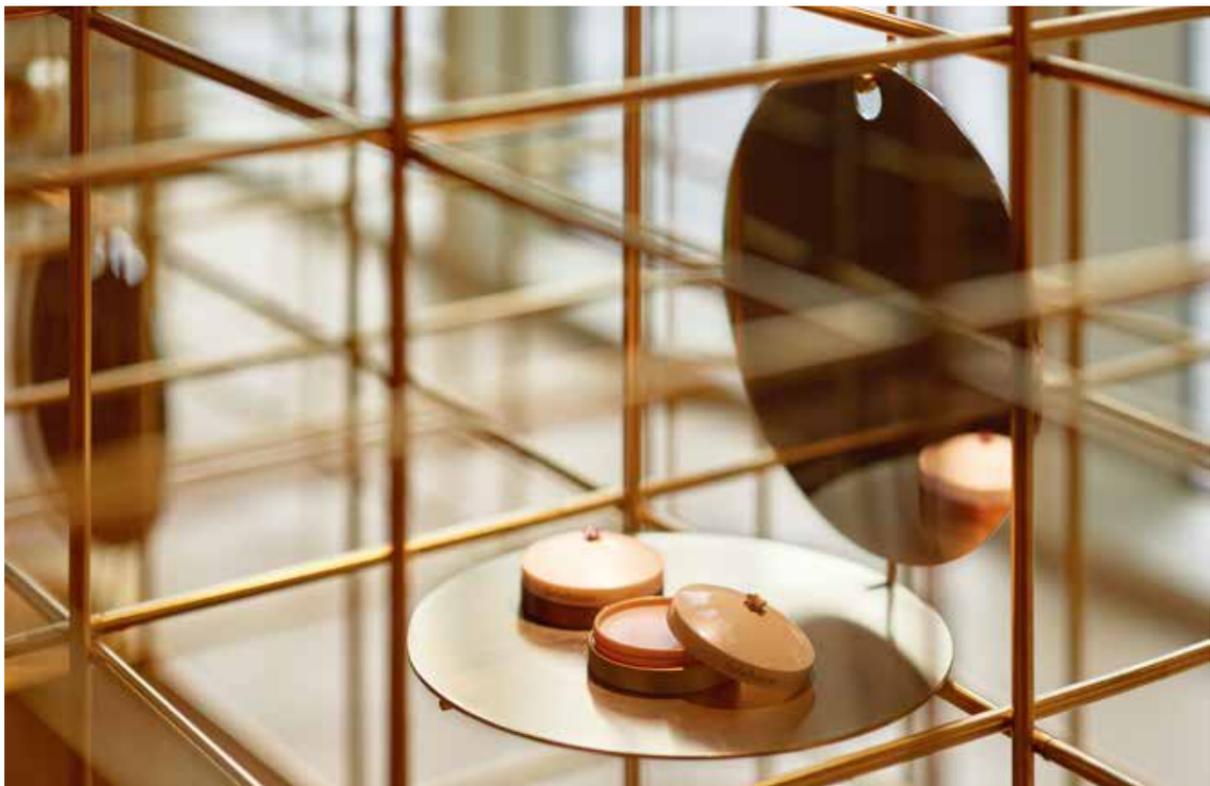
어디 한 군데 더 우월할 것 없이 전체가 그야말로 멋지다. 엽서에서나 본 듯한 이국적인 경치로 유명한 대관령 양떼 목장, 발목을 훌쩍 넘기는 깊이의 눈밭을 걸노라면 세상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을 들게 하는 원주, 차를 타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달려 높이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태백, 소양호의 물안개와 더불어 상고대의 절정으로 치닫는 춘천까지. 겨울이면 더욱 강인해지는 강원도의 힘에는 사람을 이끄는 묘한 마력이 넘쳐 흐른다. 북극권에 가깝기에 오로라의 환상적인 쇼까지 더해지면 핀란드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여행지로 우뚝 선다. 한겨울 오로라를 찾아 여행하는 헌터들과, 겨울 동심으로 유명한 로바니에미 산타마을, 일 년 중 200일이 눈으로 뒤덮이는 도시 쿠사모, 모든 것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북극권의 땅 라플란드까지. 영하 30~40도의 추위가 맹렬하지만 눈으로 덮인 핀란드는 그야말로 초미의 겨울 왕국이다. 강원도와 핀란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겨울의 공감대는 한없이 깊고 가깝게 느껴진다. S

Snow covers everything down to the tip of a twig as if it has been dipped in white paint. When the sky is blue, Sanggodae even looks like a coral reef in the sea. When you are in Gangwon-do, the snow blossoms dancing in the strong winter winds will make you forget how cold it is, and it will urge you to take out your mobile phone in order to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Everywhere you turn, there is nothing but magnificent views, such as the Daegwallyeong Sheep Ranch, which is known for an exotic and picture-perfect view, Wonju that takes you out of this world when you walk through the snow-covered field, Taebaek that you can reach up on a winding mountain trail by car, and Chuncheon near Sanggodae. Gangwon-do regains its strength during winter along with its ability to captivate people. With the fantastic show of aurora borealis near the North Pole, Finland becomes one of the travel destinations that you must visit at least once in your lifetime. You can travel with aurora hunters in search of the Northern Lights, visit Rovaniemi Santa Village where children's dreams come true, journey to Kuusamo where it snows for 200 days every year, and stop at Lapland, which is the land of the North Pole completely covered in white snow. It may be as cold as 30~40 °C, but Finland is warmly regarded as the greatest frozen land when it snows.

도시 안에서 조화로운 심신의 균형을 찾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어온 많은 이야기들이 도심 곳곳에서 피어난다.
서울이라는 멋지고도 화려한 도시, 살다 보면 때론 각박하다 느낄 때도 있지만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 들어서면 피부는 숨을 쉬고 마음은 평온을 찾기 시작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진심 어린 배려와 정성이 향이 되어 다가오다

다정함이 묻어나는 따뜻한 어감과 속 깊은 이야기들로, 순간은 행복으로 물들어진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매장 내 가득하게 퍼져 있는 매화지향과 윤조지향은 부산했던 마음을 가리앉히며 자연의 진정한 힐링을 선사한다. 거칠었던 입술에 밤(Balm)의 윤기를 더하고 나면 어느덧 메마를 새 없는 촉촉함과 온전한 편안함이 나를 가득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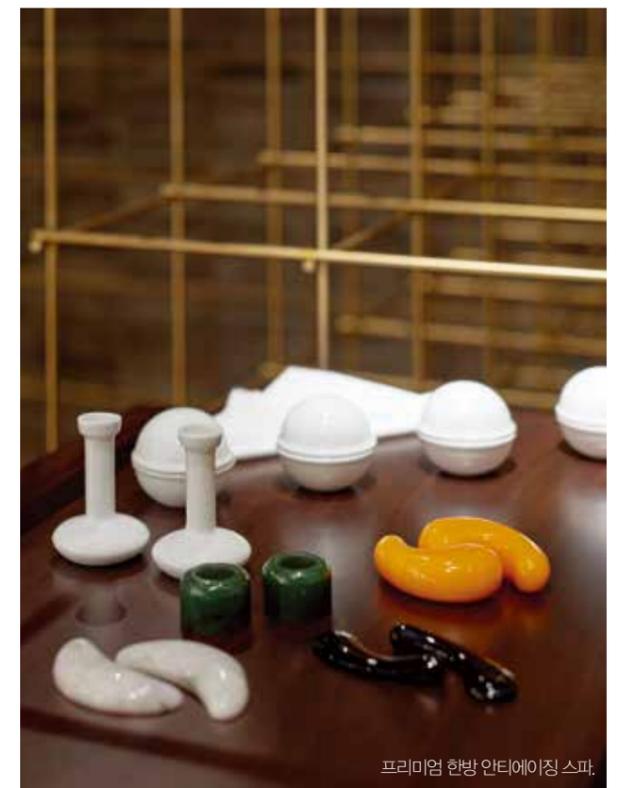


내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선물의 시간

정성스레 포장된 설화수 선물 박스는 받는 이는 물론이요 주는 이의 행복자수까지 높여준다. 외면과 함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케어하는 만든 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햇살과 바람에 칠랑거리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받는 컨템포러리 한방 밸런스 스파와 설화수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스파는 삶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잡는다.



컨템포러리 한방 밸런스 스파.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파.

차갑고 거친 날씨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의 비결

매화를 닮은 빛과 결로 피부를 화려하게 밝히다

설화수는 2003년부터 한국 전통 문양이나 소재 및 기법을 테마로 한 디자인으로 실란 메이크업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번 '2016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은 예로부터 고급 장식품의 주요 재료로 활용되어온 '자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자개공예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진주패의 고급스러운 자연미에 수공예적인 감성을 더해 비단 실타레 위에서 만개한 매화를 형상화했다. 특히 전통적인 자개 가공 방법 중, 자개 뒷면에 색을 칠해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는 기법인 '복채법'으로 매화를 표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꽃술 부분은 담수 진주를 포인트로 사용해 우아하고 단아한 기품을 부각시켰다. 또한 용기를 비롯한 내용물에도 단아하고 지조 있는 미의 상징인 매화 디자인을 적용해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더했다. 2016 실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은 초순수 파우더로 투명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콤팩트'에는 선조들의 땃들을 현대화한 입자 제어 기술인 '파인 그라인딩' 기술이 적용돼 미세한 입자가 피부를 곱고 맑게 표현해준다. '컬러팩트'에는 천연 유래 색소의 자연스러운 색감과 투명하게 빛나는 필이 적용돼 자연스럽게 빛나는 입체감을 선사한다. (12월 출시) 실란 콤팩트 리미티드 에디션 10g×2, 15만원대(상)/ 실란 컬러팩트 리미티드 에디션 10g, 15만원대(브러시 포함)(하)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다

우리의 목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항상 건조한 상태이며,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운동량이 많아 피부 노화와 그에 따른 주름이 조기에 발생하기 쉽다. 또한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노화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설화수는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주는 안티에이징 넥크림 '설화수 탄력넥크림'을 다가오는 12월 새롭게 출시한다. 초기 목주름 관리를 하고 싶었거나, 그동안 넥크림을 사용했지만 만족할 만한 탄력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설화수 탄력넥크림에 주목해도 좋겠다.

설화수 탄력넥크림은 노화에 따라 느슨해진 피부 탄력망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팽팽하게 끌어올려 주는 탄력을 선사한다. 늘지 않으며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딘다고 하여 '땅의 신선(지선)'으로 불리는 구기자에 흑두와 갈근을 더한 한방 복합제 지선제TM가 목 부위 탄력을 강화하고, 5가지 천연 에센셜 오일 성분이 목 피부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부여한다. 또 바르는 순간 느껴지는 밀착감의 텍스처가 섬세하게 피부를 감싸주고, 빠르게 피부 깊숙이 촉촉함으로 채워주는 동시에, 산뜻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해주어 편안한 사용감을 전달한다. 설화수 탄력넥크림(12월 출시) 60ml, 8만원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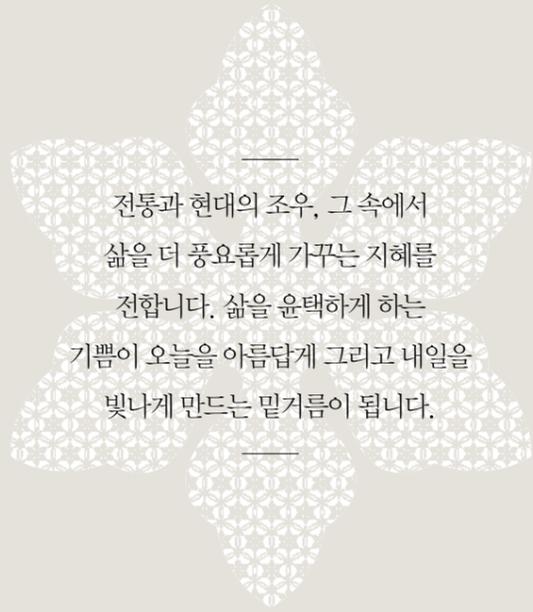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의
정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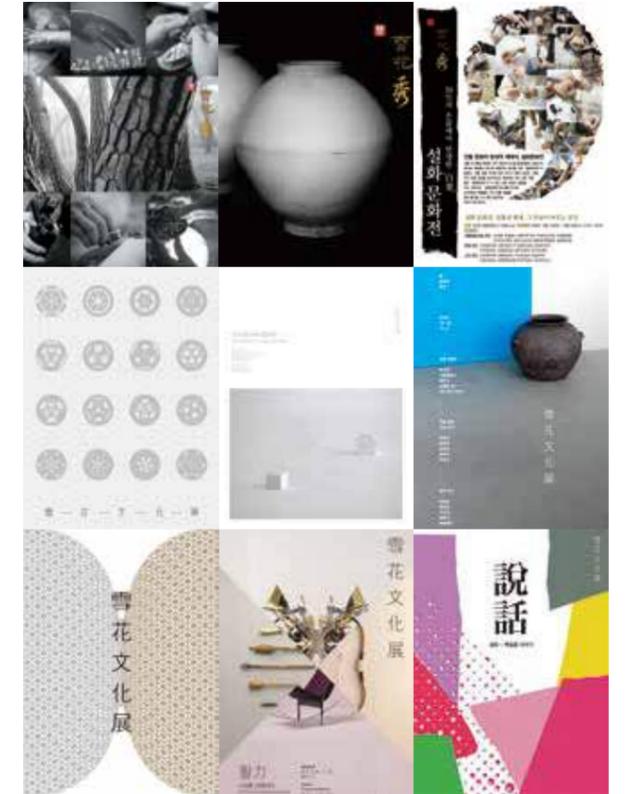


전통의 아름다움, 현대적인 미감으로 잇다

설화수의 문화 메세나 활동 '설화문화전'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그간 설화문화전이 보여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를 통한 세대간의 공감과 교류는 新문화적 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설화說話: Once upon a time - 견우 직녀> 또한 고전에서 찾은 가치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보여주는 변주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설화수

설화수는 2009년부터 '설화문화전'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문화 메세나 활동을 더욱 확장했다. 대중과 전통문화의 간극을 좁히고 한국 전통문화의 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시작하여 올해로 열 번째 설화문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오래된 씨는 생명의 싹을 내부에 갖고 있다. 그것은 다만 새 시대의 토양에 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R.타고르) 전통은 옛것 그대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 미래로 향하는 것이다. 옛것이 간직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오늘날에도 이어가는 일, 그리고 미래를 짓는 일, 설화수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설화문화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발견한 미학과 실용성이 설화수 제품을 통해 그 가치를 다시 평가받은 것처럼, 설화수는 설화문화전을 통해 전통이 품고 있는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 계승하고 있다. 설화문화전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화수는 40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한 '설화문화클럽'을 창설하고 한국 전통문화 모임과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또 우리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문화진흥기금 마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2006년부터 '설화문화의 밤'이라

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기금 마련 자선행사를 통해 그 수익금을 비영리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등 후원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이는 오늘날 설화문화전의 근간이 되었다. 2009년 설화수는 '설화문화전'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문화 메세나 활동을 더욱 확장했다. 대중과 전통문화의 간극을 좁히고, 한국 전통 문화의 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시작한 것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한 설화문화전에서는 <百美-백색白色的 아름다움>(2009), <수작-간절한 만남>(2010), <가설假說의 정원庭園>(2011) 등을 주제로 전통 작가와 현대 작가의 작품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전시를 기획했다. 2012년부터는 기존의 전시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통 장인과 현대 작가들이 <흙, 숨 쉬다. 옹기>(2012),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2013), <스किन스 (SKIN=NIKS)>(2014) 등 하나의 주제 아래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작



- 1 <은하철도의 밤>, 이수진, 타포린, 비닐, 와이어, 알루미늄, 혼합 매체, 가변크기, 2016
- 2 설화문화전 10년의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 3 <자비-연緣: 스스로 이어지다>, 김준, 복합 매체(스피커, 앰프, 8채널 사운드, 식물, 흙, 나무, 설화수 행), 가변크기, 2016
- 4 <공오적(共鳥鵲)>, OAA, 혼합 매체(목재, 금속), 160×240×440cm, 2016
- 5 <시각적 운동학 No.20: 시간의 존재방식>, 조애리, 싱글 채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LED 패널 인스태레이션, 4분, 가변크기, 2016
- 6 <눈물 방울 속 수천억 개의 별>, 안지마+이상홍, 혼합 매체, 가변크기, 2016



품을 보여주는 전시를 열었다.

2015년부터는 더욱 진일보하여 설화수만의 의미 있는 소통을 확장해 나가고자 구전으로 전해지는 우리의 전통 설화를 주제로 색다른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예술과 대중의 접점을 모색해 세대를 아우르며 교감을 이끌어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설화문화전은 다양한 세대가 흥미롭게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新문화적 전시의 기초를 유지한다. 2016년 설화문화전 <설화說話: Once upon a time - 견우 직녀>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인 '견우 직녀'를 주제로 전시를 꾸몄다. 1년에 오직 칠월 칠석 단 하루만 만날 수 있는 견우와 직녀. 그런데 은하수 때문에 칠석날도 서로 만나지 못하자 지상의 까마귀들이 하늘로 올라가 머리를 이어 '오작교烏鵲橋'를 만들어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설화이다. 견우 직녀 이야기에 담긴 사랑과 약속, 만남과 헤어짐, 인고와 기다림 등 선조들이 강조했던 삶의 이치가 이번 설화문화전의 작품 속으로 들어왔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기획과 진행을 맡았으며, 설치, 건축, 디자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대 예술 작가들이 현대적인 미감으로 재해석한 풍성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와 바로 근처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 '도산공원'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도산공원에서 시작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관람객들은 동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며, 설화 속 주인공들의 아련한 감정, 만남과 이어짐의 상징적 의미들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다.

도산공원에 5팀의 작품,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 6팀의 작품 등 총 11팀의 작품이 공간과 어우러져 있다. 특히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 보유자인 정관채 선생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 아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장인의 숨결이 깃든 손수건과 노트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수억급 전액은 문화재청을 통해 무형문화재 지원에 기부되어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될 예정이다.

도산공원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작품은 건축가 듀오 stpmj(이승태와 임미정)의 <그림자 다리>. 1년에 단 한 번 애뜻한 만남을 가지는 견우와 직녀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까마귀와 까치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림자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했다. 하루 단 한 번 오후 3시 30분, 그림자 다리를 통해 간절한 만남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도산공원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기하학적 모양의 벤치를 만나게 되는데, 오작교를 상징하는 OAA 정규동 건축가의 작품으로 실제 벤치 역할을 하며 관람객들에게 작은 쉼터가 된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여행





1 <Magic Hour on the Milky Way>, 박여주, LED 조명, 레이저트
라이트 필름, 가변크기, 2016

2 <이음>, 패브리커, 부서진 탁자, 에폭시, 75×180×65cm, 2016/
<일루전>, 패브리커, 천 스틸, 230×100×100cm, 2016

3 <은빛 강 건너편에는 너가 있다 하던데>, FriiH, 철판, 아크릴,
음향 시스템, LED 조명, 가변크기, 2016

4 <그림자 다리>, stpmj, 플라이우드(자작나무 합판), 벽 292.5×90×
12cm, 벤치 32×237×90cm, 2016

5 <마음의 벽>, 오영욱, CD 전선관, 180×210×260cm, 2016

6 <공간 집기>, 전가영, 컬러 테이프, 240×240cm, 2016

작가 '오기사'로도 유명한 건축가 오영욱은 수십 가닥의 붉은 관을 연결해, 인연을 갈라놓기도 잇기도 하는 벽을 붉은색의 심장으로 형상화했다. <마음의 벽>은 서로를 단절시키는 벽, 그러나 벽을 이루는 것은 서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결국 두 사람은 벽이 아닌 담을 통해 만나게 됨을 이야기한다. 바닥에 그려진 색색의 선들은 설치미술가 전가영의 <공간 집기>이다. 다양한 컬러의 선들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와 질서를 나타내며, 만남과 어긋남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도산공원에서 마지막 작품은 <눈물 방울 속 수천억 개의 별>로 시인의 시, 디자이너의 타이포그래피, 시각예술가의 드로잉을 접목해 흑백으로 시각화한 조형물이다. 유진목 시인의 <연애의 책>에서 발췌한 아름다운 문구와 시어가 오래도록 발길을 붙잡는다. 도산공원을 벗어나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로 향하면 황금빛 브라스 속에 담긴 푸른 물결의 향연이 눈에 띈다. <은하철도의 밤>은 플래그십 스토어의 건축 요소인 골드 프레임 안에 다양한 컬러의 여러 소재를 활용해 은하수와 오작교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외벽 계단에 설치된 <Magic Hour on the Milky Way>는

설치미술가 박여주의 작품으로 태양이 진 후 완전한 어둠이 다가오기 직전의 짧지만 아름다운 순간인 매직 아워를 표현했다. 플래그십 스토어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작품 <이음>과 <일루전>은 쓰임을 잃게 된 두 개의 가구가 하나의 매개체로 이어지며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쓰임새 있는 하나의 오브제가 됨을 보여준다. 이를 비추고 있는 두 개의 조명은 웨딩드레스 천으로 만든 것인데, 만개한 꽃의 형상은 두 사람의 하나됨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래그십 스토어 3층에 오르면 두 개의 작품과 만나게 된다. 먼저 <자비-연緣, 스스로 이어지다>는 견우와 직녀의 재회를 인간과 자연의 만남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시각적 요소 외에 청각, 그리고 설화수의 운조지향이 퍼지는 후각적인 요소가 더해져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시각적 운동학 No.20: 시간의 존재 방식>은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4분의 영상 속에 이별과 만남을 의미하는 은하수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루프톱에 위치한 FriiH의 <은빛 강 건너편에는 너가 있다 하던데>, 루프톱의 골드 프레임 사이사이에 여러 장의 푸른색 철판을 채워 넣었다. 매 시간 태양의 고도와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색색의 그림자들이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와 도산공원이라는 이원화된 공간에서 전시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설화문화전은 관람객들에게 공간과 공간들이 연결된 의미를 스스로 찾아보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 속에서 관람객들은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화문화전을 통해 교환되고 전파되는 무형의 가치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세대 간의 공감, 시대를 아우르며 공존하는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S

2016 제10회 설화문화전
<설화說話:Once upon a time - 견우 직녀>

전시일정 2016년 10월 13~11월 13일
전시장소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
도산공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2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평일 및 주말 동일)
문의 번호 02-541-9270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핸드 위빙 태피스트리

알록달록 포근한 실타래 속에서 흘러나온 낱실과 씨실.
두 실을 교차시키는 손길에서 태어나는 사랑스러운 소품. 깊어지는 겨울, 핸드 위빙을 하는 시간은
감성의 온도를 높이고 감각의 온기를 퍼트리며, 몰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위빙스튜디오 달로별

최근 핸드 위빙(Weaving)으로 태피스트리(Tapestry) 같은 소품을 만들어 집 안을 장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위빙'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베를 사용해 실로 천을 짜는 직조(織造)를 말한다.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실을 가로세로로 교차시키고 엮는, 씨실(가로 실)과 낱실(세로 실)의 원리를 이용하는 핸드 위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만하다. 나만의 취미를 가지고 싶지만 많은 시간을 내어 사람들을 만나거나 배우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취미가 되어줄 것이다. 가로 실과 세로 실을 교차시키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핸드 위빙의 가장 큰 매력. 실 한 줄 한 줄이 모이고 쌓이는 방법에 따라, 실의 컬러나 소재에 따라, 무궁무진한 패턴이나 장식을 만들 수 있으며, 가지각색의 표정이 담긴 위빙 작품이 탄생한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섬유들이 위빙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핸드 위빙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도 다양하다. 그중에서

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피스트리다. 태피스트리는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벽걸이나 가리게 따위의 실내 장식물을 말한다.

수직 틀을 앞에 놓고 온전히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

"태피스트리는 손을 움직이는 작업이다 보니 만드는 동안 집중할 수 있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아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직접 작품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은 물론 도안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게 장점이고요. 집 안을 꾸미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특정한 역할을 하기에 고마운 지인에게 전할 선물로도 손색이 없지요." 위빙 스튜디오 '달로별'의 이진주 대표는 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보길 권한다. 나만이 가진 감성을 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또 나뭇가지, 열매 식물, 작은 꽃 등을 실 중



핸드 위빙 태피스트리 만들기

준비물 수직 틀, 여러 종류의 실, 빗, 돗바늘 2개(긴 것, 짧은 것), 유목(木)오렌 시간 바닷물에 절여지고 깎인 나뭇가지, 두꺼운 종이 막대 2장, 가위

- 1 수직 틀의 못에 실을 아래위로 교차해서 1cm 간격으로 건다.
- 2 두꺼운 종이 막대 2장을 실 사이에 교차해 끼운다. 종이 막대는 실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바늘에 원하는 색 실을 켄 후 세로 실과 엇갈리면서 지그재그로 끼우고(평직) 빗으로 내려 모양을 잡는다.
- 3 세로 실에 엮는 부분을 줄이고 늘리면서 도형을 만든 후, 나머지를 채운다.
- 4 원하는 크기가 완성되면 위아래의 못에 걸린 세로 실을 떼어 매듭을 짓는다.
- 5 매듭지은 실을 바늘에 끼운 뒤 뒷면 적당한 곳에 통과시켜 세로 실을 숨긴다. 태피스트리 윗부분에 유목을 달아 완성한다.

하늘, 땅, 바다, 달빛, 별빛, 바람 등 자연을 주제로 한 태피스트리 브랜드 '달로벌' 클래스 : 일일수업과 정규수업이 있으며, 핸드 위빙을 통해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위치: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4길 27,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 10분 / 문의: www.dalobyul.co.kr)

간에 끼워 위빙하면 실과 자연물이 잘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이 담긴 태피스트리가 완성된다. 태피스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을 걸어 작업하는 '수직 틀(일정한 간격으로 못이 박혀 있는 나무로 만든 틀)'과 세로줄이나 가로줄을 엮을 때 사용하는 '긴 돗바늘', 직물을 완성한 후 마무리하거나 직물끼리 이을 때 사용하는 '작은 돗바늘', 가로 실을 꼭꼭 눌러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빗', 그리고 작업 도중 실이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시켜 작업을 편하게 도와주는 '두꺼운 종이 두 장'이 필요하다. 실은 울사, 면사, 리넨사, 혼방사, 특수사 등 모든 종류의 실을 사용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도 실의 컬러를 바꾸거나 소재가 다른 실을 써보면 느낌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실을 사용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구현하는데, 초보자는 뽀뽀한 실보다는 부드럽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탄성이 좋은 실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수직기에서 빼내었을 때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안의 감각을 올리는 핸드 위빙 아이템

세로 실을 걸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위빙이 가능하며, 천을 짜서

완성하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태피스트리 외에도, 크리스마스 리스, 오너먼트, 갈런드 등 데코레이션 아이템은 물론 티코스터, 화분 위머, 인형, 모빌, 팔찌, 헤어 액세서리 등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실로 만들어 추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을 완성할 수 있다.

작은 사각형의 직물 여러 개를 만들어 이어주면 머플러, 쿠션 커버, 테이블 매트, 리그, 블랭킷 등 제법 크기가 큰 패브릭 아이템도 만들 수 있다. 이때 직물을 투박하지 않게 잘 이으려면 두껍지 않은 실을 선택해야 하고, 직물과 비슷한 컬러의 실을 사용해야 이어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때로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 일부러 두께감이 있는 굵은 실을 선택하거나 직물과 다른 컬러의 실을 사용해도 좋다.

기존에 있던 아이템 위에 핸드 위빙을 더할 수도 있다. 밋밋했던 에이프론에 포켓을 달아주거나, 심플한 에코백에 패턴 장식을 하거나, 오래 사용해 싫증 난 가방의 스트랩을 만들어 교체해주면 어렵지 않게 새로운 느낌의 아이템으로 변신한다. 자연스럽게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니 일석이조다. 나의 취향이 오롯이 드러난 실용적인 인테리어 소품이나 패션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핸드 위빙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오직 위빙이기에 가능한, 위빙이기에 즐거운 시간이 열릴 테니. S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A time to confront the heart

따뜻한 차 한잔이 안도와 평온을 주는 계절이다. 우리 선조들은 차를 마시면서 예를 따르고, 때로는 사색을, 때로는 풍류를 즐기며, 정담을 나누었다.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 속에서 맛과 향을 음미하며 함께하는 이와 다정(茶精)을 쌓았다.

에디터 윤연숙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양지운 작가

조선 시대 차문화는 예를 갖추어 마시는 것으로 이를 담아내는 다기(茶器)는 왕실 전용 백자부터 분청사기, 도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의례 행사는 물론 일상에 사용되었다. 이 중 다관(茶罐), 찻주전자는 끓인 물과 잎 차를 넣어 차를 우려내는 다기로 급수(急須), 차주(茶注), 차병(茶瓶), 차호(茶壺)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관은 손잡이의 형태에 상파형(上把型), 후파형(後把型), 횡파형(橫把型), 보병형(寶瓶型) 등으로 구별된다. 상파형은 손잡이가 위에, 횡파형은 손잡이가 옆에, 후파형은 손잡이가 뒤에 달린 것이며, 손잡이가 없는 것이 보병형이다. 후파형 백자 다관은 19세기 조선 백자 다기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둥근 몸체 양쪽으로 나팔형 손잡이와 귀매가 달린 것으로, 입구 안쪽에는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턱을 만들고, 뚜껑 윗면에는 반룡(蟠龍(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서려 있는 용))이 장식되어 있다. 청백색의 유약이 곱게 입혀졌으며, 원과 직선이 조화되어 간결하고 단아하며, 절제된 품격이 돋보인다. 한국 전통의 상감 기법을 작가의 미감으로 재해석해 응용한 양지운 작가의 다관은 도자기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감각과 정성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졌다. 다양한 컬러와 패턴, 흙의 자연스러운 결 안에 금금을 채운 후 벗겨내는 '금연마상감' 기법은 양지운 작가의 독창적인 표면 장식 기법으로, 생활 속에서 현대화된 전통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쌀쌀한 날씨,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차 그리고 차를 더 차담게 만드는 다관. 혼자 마시면 한가로움을, 더불어 마시면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상 속에 고운 차 향과 소담한 온기가 퍼진다. S

Tea time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a time for courtesy. Teaware, such as the royal white porcelain, celadon with gray inlay, and ceramic were used not only for national ceremonies, but also for everyday life. The back-held white porcelain Dagwan represents the style of white porcelain teaware made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There is a trumpet-type handle and a spout on either side of the round body. The inside of the opening has a groove to hold the lid, while the top of the lid had a Banryong (a dragon that has failed to ascend to the sky) ornament. It is finely coated with a bluish-white lacquer, and it shows the harmony of curved and straight lines for concise, elegant, and moderated quality. Korea's traditional inlay method has been reinterpreted and applied to Artist Jiwoon Yang's Dagwan. It retains the original beauty of porcelain, yet finished with modern sentiments and careful touches. The gold polish inlay technique, wherein gold is applied to fill in the various colors and patterns of natural texture and polished off, is Yang's original finishing method that is created for us to enjoy modernized tradition and art in everyday life. Tea calms the body and mind when it gets cold outside, and Dagwan prepares the tea just right. A cup of tea will bring a subtle warmth into your life, as well as provide you quality time with yourself and pleasure when you drink with others.



〈백자 다관(白磁茶罐).
높이 10.2cm, 입 지름 4.8cm, 바닥 지름 6cm, 19세기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Cera stone Tea pot〉, 양지운.
백색자기토, 색자기토, 금, 금연마상감, 가압 성형, 캐스팅 성형, 나노 코팅.
다관 8.8×15×10.6cm / 잔 6×6×6cm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디자이너 아티스트 소은명

현대적인 감각의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가구를 만들어온 소은명 작가. 그의 비범한 가구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에서 탄생한다.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는 작품에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디자이너 아티스트로서 삶의 디테일이 아름답게 발현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전통 한옥의 문창살을 현대적 소재인 엘라스틱 밴드로 재해석한 수납장 <더 라인스(The Lines)>와 나무 모양을 그대로 따서 만든 책장 <나무가 책이 되고 책이 나무가 되네(A Tree Becomes a Book Becomes a Tree)> 등 가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충분히 아름다운 아트 오브제로서 역할을 하는 작품을 만들어온 소은명 작가. <더 라인스>는 지난해 설화수 매거진 7/8월호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더 라인스>는 문을 여닫는 행위를 생략하고, 밴드의 반복과 교차 패턴으로 문을 대신하여 물건을 자유롭게 넣고 꺼낼 수 있도록 했어요. 수납장이지만 물건들을 채우지 않더라도 공간에서 빛을 발하는 아트 오브제가 되어줄 수 있죠.” 그의 작품들은 모두 그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 첫 작품 <숨겨진 차원(Hidden Dimension)>은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책장 위로 올라간다는 콘셉트의 계단 책장이다. 소은명 작가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집중하던 어느 날, 문득 둘러보니 집 안에서 어느 한 곳도 자신의 공간이 없었던 것.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작품 탄생의 원동력이 됐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책임과 역할, 아티스트로서의 감성과 작품 활동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숨겨진 차원>이 나오자 제 삶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삶의 균형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작업을 하며 사라지고, 작품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아이와 함께 지내며 사라졌어요. 작품 활동만 하는 작가들에 비한다면 작품의 완성 기간이 더디지만, 생활에서 모티프를 발견하고 찬찬히 작품

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항상 제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더 라인스>의 밴드도 색동저고리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것인데, 단지 한국적인 것이라 차용한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한복을 입을 정도로 한복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한국적인 것을 현대에서 생활화하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나온 결과물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의 경험 속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는 소은명 작가의 애장품은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반닫이’다. 어렸을 때부터 늘 집 안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던 물건이다. 생활용품이 담겨 있기도 했고, 장난감을 넣기도 했다. 자라면서는 안 입을 옷을 넣어두며 작가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결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따라와 이제는 아이의 소품이 들어 있다.

“제가 쓰던 장을 밴드로 감는 작업을 해봤어요. 그때 이 반닫이도 감아 보면서 기존에 있던 것과 그 위에 현대적인 것이 섞여 이뤄내는 것을 실험했죠. 묵묵히 자리하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것, 그 위에 새로움이 더해지며 또 다른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시집을 가면 반닫이를 물려주고 싶어요.”

어쩌면 삼 대, 아니 그 후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반닫이. 분명 옛것이지만 현대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현재를 살아갈 반닫이는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은명 작가의 작업과도 많이 닮았다. 일상에 잠잠히 스며든 삶의 부분이 또 어떤 작품이 될지 궁금한 지금이다. S

空間, 문양으로 조화롭게 물들이다

화려함과 정교함, 자연스러움과 세련됨, 기발함과 해학이 공존하는 전통 문양, 보면 볼수록 애뜻함이 샘솟는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한국의 전통 민화 자체가 훌륭한 문양 오브제로 탄생했다. 한지로 만든 2D 도자기는 어글리베이스먼트 by 해브빈서울.



포장이나 오브제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출이 가능한 한지 보자기 함은 지희승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절정의 수공예품으로 화려한 패턴과 자개의 빛나는 감성이 만나 탄생한 나비당초무늬 일주반은 수갤러리.

최근 우리네 전통 문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는 건, 다양한 전통 문양에 담긴 놀라운 조형미와 디자인의 가치를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문양 하나하나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새로우면서도, 우리 것만이 지닌 그립고 정감 어린 '정신'이 느껴져 보면 볼수록 놀라게 됩니다. 하얀 캔버스 위 '투욱' 하고 떨어진 점 하나로 시작된 그림은 중첩과 반복, 그리고 무한의 정렬 끝에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서로 같은 혹은 다른 색의 점과 점, 선과 선, 면과 면이 만들어낸 문양의 반복적 배치는 시각적 아름다움은 물론, 사물에 힘과 생명력을 실어줍니다. 사용하는 이에게 무언의 말을 걸기도 하는데 예측치 못한 대상과의 소통은 차가운 겨울, 집 안 풍경에 따뜻한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문양이 가득한 소품을 자칫 잘못 쓰면 공간이 산만해 보이거나 세련되지 못한 인상을 주기에 기존 공간과의 배색, 소품이 지닌 이미지와 공간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김수빈



예부터 건축과 공예의 장식 문양으로 쓰인 당초문. 줄기 덩굴, 잎이 얹히고 설린 식물 문양인 당초문이 특별함을 더한다. 다용도 당초문합은 나은크라프트.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모란문과 백금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럽다. 호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각 등진은 내용환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색실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꽃 문양에서 작가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진다. 누비 카드 지갑은 유정미 작가 작품으로 청와대사랑채.



특별히 무엇을 담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어여쁜 문양 접시. 여러 문양의 접시를 모아 장식처럼 사용 가능한 호도문평 접시는 우일요.



작가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형화되지 않은 접시의 형태가 마음을 움직인다. 찔레꽃이 그려진 색을 담은 접시는 꽃담 by 청와대사랑채.



집안 어디에 놓아도 공간을 멋스럽게 살려준다. 무늬가 대칭적으로 새겨진 티포트는 한주는 작가 작품으로 이도앤즈.



화사하게 핀 꽃과 꽃 주위를 날아다니는 나비가 새겨져 있어 더욱 우아해 보인다. 붉은 띠가 인상적인 모란 무늬 옷칠 잔은 수갤러리.



형태 자체가 하나의 문양이다. 도자기로 만들었기에 도기 특유의 질감과 그 위에 칠해진 색감이 더욱 독특한 목어는 우일요.



작품으로 벽에 걸어도 좋다. 코튼과 리넨 소재로 된 연꽃 물고기 무늬병 티타월은 강정은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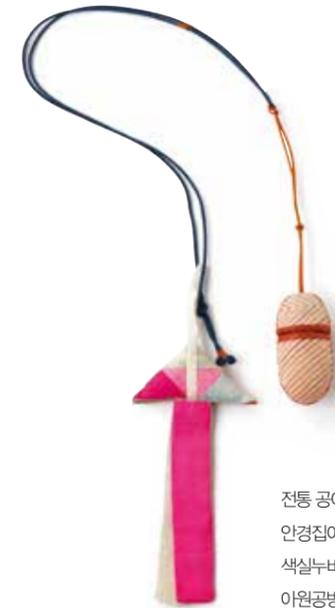
겨울, 누비로 포근하게 몸과 마음을 감싸다

보기에 따뜻한 누비는 입거나 몸에 걸치면 따스함이 배가된다. 트렌디한 스타일로 재탄생한 모던 누비의 색다른 매력.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일상생활의 특별한 날, 또는 매일매일 들 수 있는 가방이다. 누비꽃 복주머니는 김보람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전통 공예 기법인 색실누비로 만든 안경집이지만 노리개로도 사용 가능하다. 색실누비연구가 김윤선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외국인 친구를 위한 선물로도 손색없다. 색실누비 기법을 은과 접목시켜 만든 화분 모양의 브로치는 김윤선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겨울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따뜻한 겨울 그림이 있겠지요. 그중에서도 몸을 감싸며 따뜻한 보온의 효과와 더불어 감각적인 맵시까지 더해 주는 누비가 겨울이면 유달리 마음에 와 닿으며 손에 착 감기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바늘땀으로 감싸이 사이에 둔 숨이 흐트러지지 않게 형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보는 이에게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누비는 겨울을 나기 위한 옛 여인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숨씨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런 누비를 이제 방한의 목적을 넘어 세련된 감각을 뽐내는 소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려한 컬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누비 클러치 백은 물론 브로치, 목걸이 등의 작은 액세서리 제품에서도 누비의 색다른 변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정성이라는 전통의 감성에, 만든 이의 남다른 개성이 만나 탄생한 모던 누비, 서양의 켈트나 패치워크와는 다른, 웬지 클래식한 고전미가 흐른다고 할까요? 올겨울, 남다른 누비 컬렉션으로 자신만의 트렌드를 만들어보세요.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김수빈



하나보다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더욱 예쁘다. 산호꽃이 달려 있는 골무 모양의 브로치는 김윤선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작은 소품 하나에도 정성을 다한 수작. 조선 시대에 버선본을 넣어두던 버선본집은 정은자 작가 작품으로 갤러리미르.



스타일리시한 드레스 룩에도 잘 어울린다. 비비드한 블루 색감이 돋보이는 누비 클러치는 통영누비 by KCDF갤러리.



겨울 찬 바람 속에서도 언제나 따뜻함을 간직할 수 있다. 베이지 컬러의 손누비 배지는 변인자 작가 작품으로 규방문화연구소.



심플한 코트와 잘 어울린다. 짙은 그레이 컬러의 누비 방한모와 투시는 변인자 작가 작품으로 규방문화연구소.



집 안에서도 전통의 감성을 그대로 신을 수 있다. 전통 U자형 누비 슬리퍼는 조현아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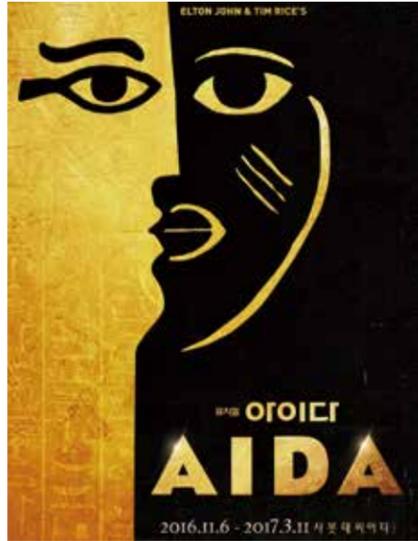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아이를 위한 선물로 좋다. 돌복과 함께 착용하는 송누비 명주 타래버선은 정은진 작가 작품.



보석과 만나 더욱 유니크하다. 라피스라줄리 원석 위에 전통 기법 색실누비 새가 놓인 브로치는 김윤선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엄마의 품과 같은 따스함을 그대로 전해준다. 전통 천연 염색법으로 물들인 아기 배냇저고리는 온새미로 by 해브빈서울.



〈Sulwhasoo〉독자 선물

뮤지컬 〈아이다〉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업무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뮤지컬이 선사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라, 뮤지컬 〈아이다〉

거대한 메커니즘과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대로 배우와 스태프 모두에게 최고의 기량을 요하는 〈아이다〉가 오랜 준비를 거쳐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시즌은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실력파 배우들이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다.

토니 상 수상에 빛나는 디즈니(Disney) 뮤지컬이자, 팝의 거장 엘튼 존(Elton John)과 뮤지컬 음악의 대표적 작사가 팀 라이스(Tim Rice)의 콤비로 탄생한 대작 뮤지컬 아이다가 11월 6일부터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아이다〉는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동시에 사랑 받는 장군 라다메스의 전설과도 같은 러브 스토리를 소재로 하였다. 〈아이다〉의 시작이자 마지막, 그리고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은 뮤지컬 〈라이온 킹〉으로 환상적인 호흡을 맞춰왔던 엘튼 존과 팀 라이스가 맡아 흑인 음악, 도시적 느낌의 세련된 록, 가스펠, 발라드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으로 클래식한 느낌의 〈아이다〉에 가장 현대적인 빛깔의 옷을 입혔다. 또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환상적인 무대 메커니즘, 무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의상, 의상과 무대의 선명한 색깔을 더욱 다채롭게 살려주는 완벽한 조명에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현대적인 안무까지, 뮤지컬이 선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숨막히도록 아름답고 독창적인 무대 예술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3일~2017년 3월 11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02-577-1987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온 비극적인 사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The new way〉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헤닝 브록하우스(Henning Brockhaus)'가 연출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The New Way〉가 오는 11월 국내에서 초연된다.

〈라 트라비아타〉는 주세페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 곡으로서 19세기 말 파리에 서 펼쳐지는 화려계 여성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상류사회의 위선적인 모습과 사회적 약자가 핍박받는 장면들을 그대로 작품에 녹여내어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1992년 이탈리아 마체라타 스페리스테리오 야외 극장에서 공연됐던 헤닝 브록하우스의 〈라 트라비아타〉를 그대로 한국에 옮긴 작품이다. 초연 당시 사용했던 무대와 의상, 소품 등을 그대로 가져와 재현한다. 헤닝 브록하우스의 〈라 트라비아타〉는 당시 무대 위 거대한 거울과 화려한 그림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시각 효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이탈리아 로마, 일본 나고야, 미국 볼티모어·팜비치, 스페인의 발렌시아, 프랑스 툴롱, 중국 베이징 등 세계 유명 극장에서 재연됐다. 비올레타 역에 소프라노 글래디스 로시와 알리다 베르티, 알프레도 역에 테너 루치아노 간치, 제르몽 역에 바리톤 카를로 구엘피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며, 이탈리아 출신 세바스티아노 데 필리피의 지휘로 서울시립합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일시 11월 8~13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587-1950~2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몬테크리스토〉는 장맛빛 인생이 한순간 절망의 나라로 떨어져 복수를 결심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전개, 끝내 사랑과 화해를 선택하는 로맨틱한 스토리가 관객들에게 감동과 쾌감을 전한다. **일시** 11월 19일~2017년 2월 12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1577-6478

음악극 〈올드위키드송〉



절망을 웃음으로 애써 포장하는 괴짜 교수 미슈칸과 마음의 문을 닫아 절망을 숨기는 피아니스트 스티븐의 이야기. 두 남자가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발견하고 음악으로 서로를 들여다보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일시** 11월 8일~2017년 1월 22일 **장소** 드림아트센터 1관 **문의** 1566-5588

2016 거미 전국 투어 콘서트 〈Feel the voice Season2〉



거미가 총 8개 도시의 투어를 이어가며 전국을 '거미 감성'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다. 올 한 해 뜨겁게 사랑 받은 OST는 물론 거미의 역대급 히트곡, 이번 투어만을 위해 준비한 스페셜 무대 등 숨겨왔던 거미의 새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시** 11월 26~27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문의** 1544-1555

책 〈상냥한 폭력의 시대〉



〈낭만적 사랑과 사회〉, 〈달콤한 나의 도시〉 등을 집필해 온 '도시기록자' 정이현이 9년 만에 선보이는 단편소설집 '무서운 것도, 어색한 것도, 간절한 것도 없어 보이는 삶에 질기게 엮인 이 멋없는 생활'에 대하여 포착한 자취들이 7편의 소설에 가득하다. **지은이** 정이현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

전시 〈백년의 신화: 한국근대미술 거장전 유영국〉



한국에서 추상화의 영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선구적 화가 유영국(1916~2002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전시는 유영국이 전 생애 동안 남긴 작품과 아카이브를 토대로,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의 진면모를 소개한다. **일시** 11월 4일~2017년 3월 1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문의** 02-2022-0600

전시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도시화에 따른 미술과 미술 환경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는 기획 특별전 〈태평성시도〉, 〈청명상하도〉 등 18세기 이후 성장한 '도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의 경관, 정서, 미의식 등을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들을 소개한다. **일시** 11월 23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02-2077-2946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공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 x 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알맞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충실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알맞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올리고 피부를 강하게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파니셔
80ml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T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자 필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명의본초영플
명의진*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주는 고농축 영플
7ml x 5 | 200,000원대

탄력넥크림
지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넥크림
60ml | 8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깨끗하고 환한 안색을 선사하는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스크럽젤
백상 피우다가 포함된 젤 포물러가 알고 매끈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스크럽 젤
100ml | 55,000원대

자정수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미백 효능을 끌어올려주는 젤 타입 미백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수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맑은 안색을 선사해주는 미백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파트리트먼트
가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행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파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
쿨링 자극 아몰리케이드와 매끄러운 텍스처가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아이트리트먼트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스킨크림
40ml | 75,000원대

어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절하게 가꾸어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어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머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외선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50ml | 180,000원대

자음생진보유
인삼 종자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자외선 라인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또렷하고 힘있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인삼 결정체가 노화의 징후를 다스리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자음생크림과 효능은 동일하지만 부드럽고 산뜻한 질감의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수술 라인

수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술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술선펴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지위선 으로부터 피부를 케어 하는 수분선펴루이드
50ml | 55,000원대

수술선펴크림
(SPF 50+ / PA+++)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수분 선펴크림
50ml | 55,000원대

바디 & 헤어

동백윤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외선으로부터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심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수
적송 성분이 즉각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송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일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송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심과 홍심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서치 토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다함설 라인

설안팩
백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어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옵션 라인

옥윤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는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에올마사지크림
자신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MEN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 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150ml | 30,000원대

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쿠션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탄력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 x 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팅
(SPF 50+ / PA+++)
묵련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팅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스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채담 메이크업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김새만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진설 유에이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팩트
영윤 파우더가 화사함과 스킨케어 바운스 효과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블루미네이팅 파운데이션
(SPF 35 / PA++)
스킨케어 바운스 효과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30g | 80,000원대

블루미네스

블루미네스 팩트
(SPF 32 / PA+++)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65,000원대 (리필 48,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와 핑크톤이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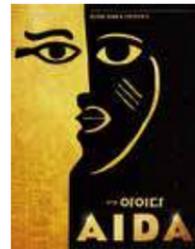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4명)

헤리티지 원료인 인삼의 생명력을 오롯이 담아낸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워주어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 본연의 건강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뮤지컬 <아이다> 관람권(3명)

전설과도 같은 러브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토니 상 수상에 빛나는 뮤지컬 <아이다>의 관람권을 3명(인 2배)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6년 1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
- 당첨자 발표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6년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4명)

- 고혜진 경남 진주시 도동천로
- 김종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 김현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허수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3명)

- 장윤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최미리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
- 황보연 서울 마포구 새창로

2016년 9/10월호 당첨자 선물은 11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귀한 적송추출물을 피부빛에 더해 건줄 데 없이 탄탄하게 머금은 윤기를 완성하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인텐스

힘을 잃은 피부에 더한 아름다움은 순간의 빛으로 사라집니다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를 탄탄하게 가꿔주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인텐스
시간이 쌓아올린 고귀한 적송추출물이 피부에 힘을 채우고 피부를 맑게 하는 매화추출물과
피부를 밝혀주는 래디언스 펄 파우더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해진 탄탄한 윤기피부를 선사합니다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6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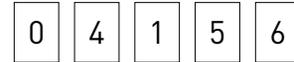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 폼격 있는 삶(8p)
- 피부 섬기기(12p)
-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 新 공간을 보다(22p)
- 건너다(28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2. 누리다

- 설화인(36p)
- 어우러지다(44p)
- 설화풍경(50p)
- 설화보감(54p)
- 아름다운 기행(60p)
-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3. 익히다

- 읽다(76p)
- 배움의 기쁨(82p)
- 한국의 멋(86p)
- 설화에장(88p)
- 집 안 단장(90p)
- 몸 단장(9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뮤지컬 <아이다>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38-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